

THE
60th

한국사진작가협회 전국회원작품 지상전

접수마감 ▶ 2023년 1월 14일(금) 당일 소인유효

작품내용
출품방법
출 품 수
참가자격
시 상

자유작

8"×10"인화지 또는 파일

1인 2점 이내

2022년 12월 31일 기준 협회 정·준회원

전국회원작품지상전 운영규정 제 10조에 의거 우수작품상 수상자 선정

① 출품인수가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명을 선정한다.

② 출품인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품인수의 1.5%를 선정한다.

우수작품상 선정작 중 최고작품을 뽑아 제61회 한국사진문화상 작품상 수여

2022년 11월 1일 ~ 2023년 1월 14일(당일 소인유효)

1인당 40,000원 (최고급 작품집 증정) - 작품집 소속 지회·지부로 발송

우:07995)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목동, 예술인화관) 1701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메일 koreapask@daum.net

※작품접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소속한 지회·지부를 통해 일괄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개별접수도 가능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02-2655-3131~3

작품 뒷면에 작품명, 회원명, 지회·지부명, 주소, 연락처, E-mail을 필히 기재 후 부착하여 제출 할 것.

수상자는 2023년 PASK AWARD에서 시상하고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점수 2점을 부여,

수상작품은 월간 한국사진에 작품 게재

전화문의
출품요령
특 전

기타사항

· 작품은 발표, 미발표 작품으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수상작은 미발표작에 한하여 선정함.

· 발표작을 미발표작으로 기재하여 선정이 될 경우 상권을 취소하며 문제작으로 분류 조치함.

· 출력한 사진이 아닌 파일로 접수하는 경우는 작품집에는 수록되나 우수작품상 심사에는 미포함.

· 작품 접수와 동시에 출품자명으로 출품료를 송금하여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작품은 회원 작품집에 수록되지 않음.

· 출품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본 협회에서 진행하는 2022 미분배보상금사업 사진저작권자 권익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KOLAA(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자 등재 관련한 안내 예정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878301-01-290242 예금주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

VOL. 509

한국사진

www.pask.net

The Journal of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VOL. 509 December 2022.12

The Journal of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12 2022
Dec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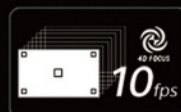
SONY

Resolution X Speed

α7R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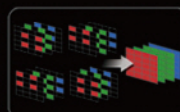
약 4,240만 화소
최대 15스탑 DR



초고속 10fps 연속 촬영
무음 연속 촬영 지원



399개 위상차 검출
AF 포인트



픽셀시프트
멀티 촬영



4K HDR 영상촬영
HLG, S-Log3 지원



영월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접수기간 2022. 11. 10 (목) ~ 12. 9 (금) 까지 (당일도착분까지 유효)

• 응모방법

- 출품자격 : 제한 없음(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작품내용 : 영월의 역사, 문화, 자연경관, 축제, 주요관광지, 레저 등 촬영작품
- 작품규격 : 일반부 11 X 14 무테(컬러, 흑백) SNS부 8 X 10 무테(흑백포함), 장정붙임
- 촬영시기 : 일반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촬영작, SNS부는 2022년 9월 1일 이후 촬영작만 인정
- 출 품 수 : 1인당 최대 6점 / 출품료 : 1인 4점까지 2만원 (4점 초과시 1점당 10,000원 추가)
- 접 수 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33번길 20 영월우체국 사서함 4호
- 출품요령 : 작품뒷면에 출품표(작품명, 촬영일시, 촬영장소,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필착
- 문 의 처 : 지부장(정순만) 010-5378-3339, 사무국장 (홍성래) 010-4194-9004

• 시상내역

구 분	일 반 부		SNS부		구 분
금 상(영월군수)	1점 상금	3,000,000	1점 상금	1,000,000	- 중복시상은 1인 2점으로 제한
은 상(영월군의회 의장)	2점 상금 각	2,000,000	2점 상금 각	500,000	
동 상(사협영월지부장)	3점 상금 각	1,000,000	3점 상금 각	300,000	
가 작(사협영월지부장)	5점 상금 각	500,000	5점 상금 각	200,000	
입 선(사협영월지부장)	60점 상금 각	100,000	26점 상금 각	100,000	

■ 심사일시 : 2022년 12월 13일(화) 13:00~ 영월군청 대회의실 (공개심사)

■ 심사발표 : 심사후 3일 이내 사협 · 군청 홈페이지 게재

• 기타(유의)사항

- 입상 및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함.
- 입상 및 입선작은 발표 후 5일 이내에 원본 파일 제출 (미제출시 상권 취소) 해상도 300dpi, 장변 3,000, 단변 2,500 pixels 이상 jpg 또는 JPEG파일 / 필름의 경우 스캔받은 디지털 출력 파일(이미지 크기는 동일) 제출.
- 원본파일 제출처 : 이메일 sansaesoli@hanmail.net
- 제출시 유의사항 : 이메일 제목은 “2022영월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출품자 성명)” 으로 기재 / 작품파일 이름은 “성명(지역), 작품명, 촬영일시, 촬영장소” 순으로 표기.
- 동일자, 유사작, 합성, 과한 보정으로 판명 될 경우 낙선 및 상권 취소.

- 사진촬영 정보가 없는 사진 불인정.
- 입상자(금, 은, 동, 가작)는 시상식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함.

• 저작권 / 저작물 이용

- 응모된 작품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주최/주관/후원 측에서는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10년 동안 공익적 목적 (군정 및 홍보 등)으로 복제, 배포, 공중송신(홈페이지 게시 등)을 할 수 있음.
- 응모작과 관련된 저작권, 초상권, 명예훼손 등의 분쟁 발생의 모든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주최/주관/후원 측에서는 응모작 2차 저작물 작성이나 활용시에는 응모자와 별도 합의를 요함.
- 작품집 송부 : 응모자 전원에게 시상식 후 작품집 개별 발송.
- 낙선작은 반송하지 않음.

• 출품표(예시)

2021 영월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출품표(일반부, SNS부)			
사진 정보		작가 정보	
작 품 명	붉은메밀밭의 추억	성 명	홍 길 동
촬영일시	2022. 9. 25. 10:30	주 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21 (우)26223
촬영장소	영월읍 동강로 630(삼육 2리 먹골)	전화번호	010-4000-9000
상금수령계좌 : (통장번호)		(은행명)	

주최 · 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월지부

후원 : 영 월 군

[선거공고 1호]

제30대 정·부이사장 선거 공고

제30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부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규정 제21조(선거공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거일 : 2023년 1월 14일(토)

*선거관리규정 제39조에 의한 16개 투표지역(단, 경기도는 투표참여율을 고려하여
남·북으로 나누기로 결의됨.): ①서울특별시, 해외지부 ②광주광역시 ③대구광역시
④대전광역시 ⑤부산광역시 ⑥울산광역시 ⑦인천광역시 ⑧강원도 ⑨-1경기도(남)
⑨-2경기도(북) ⑩경상남도 ⑪경상북도 ⑫전라북도 ⑬전라남도 ⑭충청북도
⑮충청남도 ⑯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별 투개표장소 및 시간은 별도공지

2022년 11월 14일

사단
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 옥 수



Contents

December 2022 Vol.509

Cover Story



이준모(전주지부) 향교 단풍

각자의 색으로 물들어 간 전경은
이 계절의 끝에 곧 흩어지겠지만,
가장 화사하게 칠해진 순간은
하늘의 눈에 영원히 남는다.

기 중 : Dj phantom4
촬영일 : 202.11.10

03 Headnote

참여 영역의 확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김양평

04 제30대 정·부이사장 선거 공고

[선거공고 1호] 제30대 정·부이사장 선거 공고

[선거공고 2호] 제30대 정·부이사장 선거 예비후보 및 후보등록 공고
선거를 맞이하여 회원님께 드리는 말씀 – 박옥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3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단

[선거공고 3호] 제30대 정·부이사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결과공고

10 특집/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전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전 개최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상 수상작

38 지상전 01

서울산책

10명의 산책자들을 통해 본 세월의 간극 – 박옥수(서울중구)

42 Photo Essay 01

생장소멸하는 자연, 정지화면에 담다

생명의 빛– 이인우(대구)

46 지상전 02

‘뚝뚝뚝’ 희로애락 추억돼 흐르고...

내 인생의 보물, 시간 – 이장희(밀양)

50 Photo Essay 02

아픔이 가득한 곳, 생명이 싹튼다

매항리 54년 간의 기록 – 임삼진(수원)

회원광장

54 Review & Preview

크리스 맥카우 사진전

Chris McCaw 'Into the Sun' – 김재훈



Headnote

참여 영역의 확대

얼마나 사는냐가 아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현 시대에 문화와 예술의 중요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문화예술은 어쩌다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아닌 평범한 하루 중에도 쉽게 접하는 '일상 속의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문화예술이 나아가야 할 영역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입니다. 시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직접 배우며 즐길 수 있는 영역을 개척하며 문화예술이 성장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교육이 사진작가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교육의 진행과 별개로 가볍게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과정의 확대가 중요합니다.

특히 사진예술은 휴대전화라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필수품을 통해 참여영역으로의 진입 장벽이 낮은 분야입니다. 유명 갤러리에 가지 않더라도 어느 지방의 강의실에서 촬영법을 교육하고 배우며 사진에 빠져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예전의 똑딱이 카메라가 했던 사진 입문의 역할을 휴대전화를 통한 교육이 대신하며, 이를 통해 전문 영역으로의 유입을 확장시키는 것이 참여 예술의 시대에 우리 협회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입니다.

보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협회는 우수한 전국적인 조직과 인력이 갖추어져 있기에 전문가 영역과 참여영역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에 지금의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일상 속 사진교육의 확대를 통해 사진 예술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김 양 평

Contents

December 2022 Vol.509



한국사진

발행인 | 김양평
 펴낸곳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01호
 전화 | 02-2655-3137(편집장)
 팩스 | 02-2655-3130
 URL | <http://www.pask.net>
 E-mail | koreapask@daum.net
 웹하드 | ID : kpask / PW : kpask
 펴낸날 | 2022년 12월 1일
 등록일 | 2017년 4월 14일 등록번호 양천, 라00087
 홍보위원회 위원장 | 김종택
 출판팀장 | 손석운
 출판위원 | 성주희, 이기범, 이종석, 임성동
 편집장 | 노성진
 제작 | 도서출판 피알에이드(02-2264-1996)
 알림 | 회보 「한국사진」에 실린 상업광고와 글은 광고주와 필자의
 견해이며, 본 협회나 편집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고안내

표지 및 내지원고는 편집디자인 중 작가노트 또는 작품원고 일부는
 편집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사진강좌

60 Travel destination

진실은 글보다 카메라, 세상 바꾼다
 사진의 생명력 - 최승언

64 Lightroom

책 모듈에서 나만의 작품집 만든다 - 1- 백종수

68 Photo Review

역사를 기록한 세계 저널리스트 - 은효진
 사진 창작을 위한 이미지 발상기법 : 스캠퍼를 중심으로 - 윤은숙

76 분과위원회

학술교육사진분과위원회
 학술교육분과위원회 발간식 및 워크숍 - 최옥임
 보도사진분과위원회
 제29대 보도사진분과위원회 출판기념회 - 김정호
 다큐사진분과위원회
 '해님이 해맞이' 2022 송년행사 및 촬영회 개최 - 우숙자

협회소식

84 Society News / Member Plaza

협회소식 - 제22회 서울특별시사진대전 시상식, 대상에 허성숙 외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90 Best Brand & Product

극강의 화질에 AI AF로 더욱 강력한 AF성능을 갖춘 a7R V

95 Gallery

'성서의 땅 이스라엘' 김한기 사진전 외

정가구독 1년 6만원

계좌 : 국민은행 031-25-0001-564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로 입금 확인하시고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의 · 구독 및 배송관련 문의 02-2655-3131

웹하드 | ID : kpask / PW : kpask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사진작가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후원 위원을 모십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장학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본 협회 발전과 사진예술 발전을 위한 우수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장학기금후원에 적극 동참하고 활동을 함께 할 위원을 모시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장학후원금 기탁 현황 (2022년 8월 31일 현재)

· 김양평 이사장 1억원 기탁

· 김광철 장학기금관리위원장 1천만원
· 강부만 운영자문위원회위원장 1천만원

· 김종택 부이사장 4백만원
· 최성용 위원(이사) 5백만원
· 이한욱 위원(이사) 5백만원
· 박찬석 위원(이사) 5백만원
· 유광중 위원(부대위원장) 5백만원

· 임만덕 위원(분과위원장) 5백만원
· 이병화 위원(연구자부) 5백만원
· 송재구 위원(이사) 3백만원
· 김재훈 회원(홍보구) 1백만원
· 박승의 회원(인양지부장) 3백만원

· 이승자 회원(서울) 3백만원
· 결산이자 150,764원

· 총 기탁 금액
164,150,764원

[선거공고 2호]

제30대 정·부이사장 선거 예비후보 및 후보등록 공고

선거관리규정 제32조 및 제29조, 29조의 2에 의거
제30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부이사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비후보등록]

1. 등록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09:00 ~ 17:00
2. 등록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의실)
전화 : 070-8888-3137 / 02)2655-3136
3. 구비서류 : 선거관리규정 제29조 ①항에 따른 등록서류 및
기탁금 일금 이천만원(제33조에서 정한 기탁금의 100분의 20)

[본 후보등록]

1. 등록일시 : 2022년 12월 22일(목) 09:00 ~ 17:00
2. 등록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의실)
전화 : 070-8888-3137 / 02)2655-3136
3. 구비서류 : 선거관리규정 제29조의2 ①,②항에 따른 등록서류 및
기탁금 일금 팔천만원(제33조에서 정한 기탁금의 100분의 80)

2022년 11월 14일

사단
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 옥 수



[선거공고 3호]

제30대 정·부이사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공고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정관 제12조(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제32조(후보자 등록 공고)에 의거 제30대 정·부이사장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거주지	소 속
	유 성 수	1952.05.17	전북 익산시	익산지부
	유 수 찬	1962.09.22	서울 양천구	양천구지부
	김 양 평	1948.09.21	경기 고양시	파주지부

*후보 등록 순

2022년 12월 1일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 옥 수



선거를 맞이하여 회원님께 드리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제30대 정·부이사장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옥수입니다. 어느덧 현 29대 집행부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왔고, 다음 4년을 이끌어 갈 새로운 정·부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9일 위촉장 수여식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모든 위원님들은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예비후보 등록 제도를 비롯하여 변경된 규정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공지사향과 후보에 관한 공약 및 정보는 협회 홈페이지와 우편물을 통해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협회는 한국예총 열개 단체 중 대표자 선출과정에 직접 선거를 하는 몇 안 되는 단체입니다. 이는 수준 높은 회원님들이 그간 보여주신 애정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차기 정·부이사장 선거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 향후 협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리더를 선출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선거가 상대를 상처내고 미움을 더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함께 손을 마주잡기 위한 통합의 계기가 되도록 후보자들을 포함한 모두가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제 곧 한국사진작가협회를 책임질 집행부를 우리의 손으로 뽑게 됩니다. 회원님들께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회비미납으로 인해 피선거권이 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회원님의 회비납부 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3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은 선거가 종료되는 날까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단
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 옥 수



제3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단



박옥수 위원장(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완기 부위원장(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배택수 상임위원(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문제민 위원(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김윤식 위원(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명수 위원(광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권영희 위원(대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흥기 위원(대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우경환 위원(대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김장환 위원(부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송재구 위원(부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황치길 위원(울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곽준석 위원(인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김삼택 위원(경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정휘 위원(경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해중 위원(경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손석운 위원(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김응래 위원(경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박병우 위원(경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영헌 위원(경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최성용 위원(전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삼환 위원(전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김경호 위원(충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종석 위원(충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권기갑 위원(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022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전 개최 수상자 5명에 상장, 순금배지 수여

지난 2022년 11월 26일(토) 오후 3시 강동아트센터에서 대한민국 사진대전 초대작가전 및 초대작가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2022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와 초대작가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공모부문 및 추천부문과 분리하여 이번 전시가 개최되었으며 조치호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전식과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대관 사정으로 인해 서울 소재에 전시장의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올해는 불가피하게 작은 규모로 진행을 하게 되었으며 내년

을 위해 미리 좋은 전시장을 대관 신청했다는 사무국장의 식전 인사가 있었다. 이어서 김양평 이사장은 “초대작가님들에 대한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 전시를 분리했습니다. 다소 아쉬움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별도의 전시를 통해 초대작가의 위상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여기계신 초대작가님들께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대한 적응을 통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창작의 영감을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당부도 전했다.



전시장 전경



인사말을 하는 김양평 이사장



축사를 하는 김정식 초대작가위원회 위원장



행사 진행을 하는 조치호 사무국장(강남구 지부장)

다음으로 행사를 주관한 김정식 초대작가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신 이사장님 이하 협회 임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전시에 참여해주신 모든 작가님께도 깊은 감사 인사 전합니다. 사진예술 발전을 위해 함께 계속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축사를 남겼다. 이후 초대작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협회 규정변경을 통해 올해부터 초대작가상 수상자를 다섯 명까지 선정할 수 있게 되었고 김일창, 최부길, 신영팔, 김동민, 이윤순 작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순금 배지가 수여 되었다. 한 명씩 무대 앞에서 수상을 한 뒤에 전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되었다. 이후 작품을 관람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보내고 내년의 전시를 기약하며 행사가 종료되었다.



초대작가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한 김양평 이사장 (사진 맨 왼쪽부터 김동민 자문위원, 이윤순 이사, 김정식 위원장, 김양평 이사장, 신영팔 자문위원, 최부길 자문위원, 김일창 자문위원)



개전식 테이프커팅 기념촬영

2022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상 수상작



시장가는 길



김 일 창



최 부 길



조형



신영팔



자연미



김동민



창



반영



이윤순

신비의섬 제주

사진작품 촬영

홈 : photojeju.com

제주도 촬영 안내

제주 촬영 오실 때 4명까지 상자에 4대분 우표로 제공합니다
 상도를 지도 및 풍경 촬영 실시간 모니터링 안내 · 오전과 오후
 차량 : 오전 9시 ~ 12시 1명 ~ 4명까지 차량 포함 | 하루 20만원
 차량 : 오후 2시 ~ 5시 1명 ~ 4명까지 차량 포함 | 하루 30만원
 (개인 스토리 작업 촬영 전문 개인전시 및 작품집 별도 문의)
 제주도 촬영 촬영 가이드 권 기갑 연락처 : 010-3008-0202

Haida

New M10-II

필터 홀더 출시



M10-II 개선점



퀵 릴리즈 레버

누르는 방식의 퀵 릴리즈 레버를 적용했습니다. 기존 당기는 방식과 비교해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졌고 달착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홀더 회전 잠금장치

홀더 회전을 막는 잠금장치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회전 잠금장치가 별도 적용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잠금장치가 추가되면서 원하는 위치까지 정확히 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형 사각필터 고정 클립

손으로 탈착할 수 있는 일체형 사각필터 클립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플드 고정 방식과 비교해 조립이 쉽고 빨라서 필터를 고정하는 클립에 느껴졌던 불편함을 대폭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PTC-2351C

휴대성을 높인 고성능 삼각대

| 5단 다리

| 접은길이 395mm (웨이트후크제외)

| 지지하중 20kg

모델명 : PTC-2351C

센터컬럼 포함 최대높이 : 1425mm

센터컬럼 제외 최대높이 : 1200mm

최저높이 : 130mm

접은길이 : 395mm (웨이트후크제외)

제품무게 : 1.48kg

지지하중 : 20kg

파이프 지름 최대 : 29mm

파이프 지름 최소 : 15mm

단수 : 5단

스파이크 : 38



전용 플레이트 시리즈

특정 모델 전용으로 설계해 완벽하게 결합되는 플레이트

LB-Z9M

Nikon Z9 전용 L 플레이트



LB-GFX

FUJIFILM GFX 100S, 50S II
전용 L 플레이트



LB-R5-UP

Canon EOS R5 전용 L 플레이트



LB-SA4

SONY α7R IV 전용 L 플레이트



포토클램 인터네셔널

031 - 488 - 9111

www.photoclam.kr

판매점

서울 | 대림동 (02-235-4723) | 용인 (031-235-2000) | 창원 (055-512-1122) | 부산 (051-235-2000) | 인천 (032-235-2000) | 대전 (042-235-2000) | 대구 (053-235-2000) | 광주 (061-235-2000) | 제주 (064-235-2000)

대전 | 대림동 (042-235-2000) | 서울 (02-235-2000) | 대구 | 대림동 (053-235-2000) | 부산 | 대림동 (051-235-2000) | 인천 | 대림동 (032-235-2000) | 광주 | 대림동 (061-235-2000) | 제주 | 대림동 (064-235-2000)

합천 | 대림동 (055-235-2000) | 울산 | 대림동 (052-235-2000) | 광주 | 대림동 (061-235-2000) | 제주 | 대림동 (064-235-2000)

December 2022 HANKOOKSAJIN



자석사각필터홀더

더 빠르고 간편하고 정교하게!

원형 자석 82mm 장착가능



MAGNETIC
FILTER
SYSTEM

자석사각
필터시스템

CIRCULAR
FILTER
DIAL

원형필터
다이얼

FILTER
FALL
PREVENTION

자석필터
낙하방지

EASY
GND
POSITION

쉬운GND
위치조절

USE UP TO
4 FILTER

최대 4장
필터사용

벤로코리아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삼각대와 사진장비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TEL 02-775-6681 www.benrokorea.co.kr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 (효곡생명 1호빌딩, 2층)

BENRO 벤로코리아
Let's go! **BENROKOREA**



BENRO PREMIUM MAGNETIC FILTER

마그네틱 필터의 탑클래스 벤로 자석필터 시리즈



자란 방원대, (www.benro.com) / 조로스 (벤로) / 조로스 (벤로)



**타사대비
2배이상 자력**



**발유, 발수
오염방지 코팅**



**최상등급
광학기술**



**자외선, 적외선
완벽 차단**



**울트라 슬림
필터 프레임**

벤로코리아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삼각대와 사진장비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TEL 02-775-6681 | www.benrokorea.co.kr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충국광행 1호별관, 3층)

BENRO **벤로코리아**
Let's go! **BENROKOREA**

BENRO

TMTH44C

사진과 영상까지 맘모스 삼각대 하나로!

벤로 맘모스 4시리즈 4단
카본 레벨링 삼각대 91cm

ACC
ADOPTS
MODULE

ACC 어댑츠
모듈 시스템

25kg
MAX

최대로드
15kg

8x
CARBON
LEG

8개의 극대산
카본 레그

BL75
LEVELING

레벨링 BL75
가변구경

1730
MAX.H

최대 높이
1730mm

270
MIN.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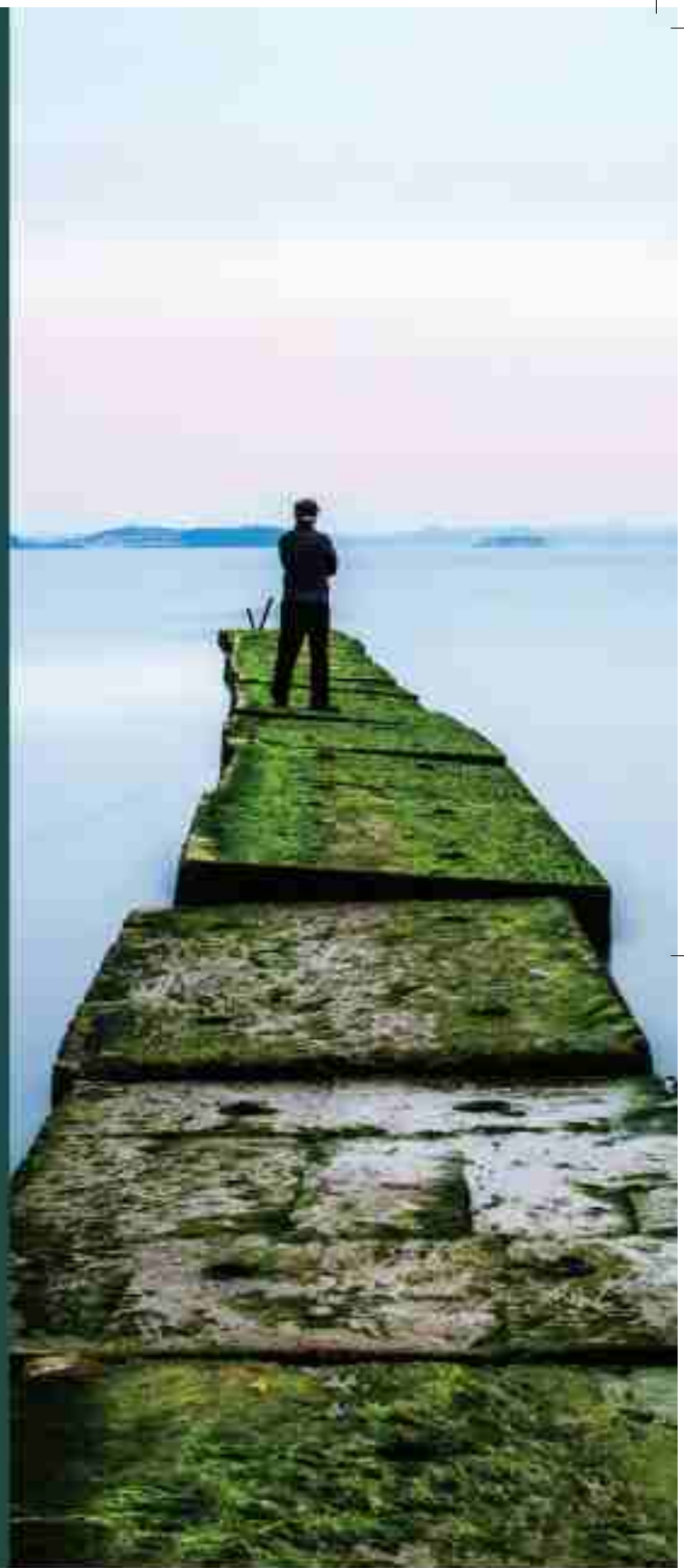
최소 높이
270mm

벤로코리아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삼각대와 사진장비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TEL 02-775-6661 www.benrokorea.co.kr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흥국생명 10빌딩, 2층)

BENRO **벤로코리아**
Let's go! **BENROKOREA**

Artlux[®] 총판

아트룩스는 첨단 소재 기업 존스미디어(주)의
고품격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으로 구성된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기능으로
더욱 우아하고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토탈 프리미엄 (실내·실외) 자외선/습기에 강한
갤러리 전시액자, 사진충벽 및 광고 포토패널 시스템입니다.



— 한사전, 시·도전, 사진축전, 갤러리, 야외전시작품 제작 대행 예약받습니다 —

• 작품 보정작업도 가능합니다. 파일전송(이메일) : bebe9006@naver.com) •

Artlux[®]
프리미엄 포토패널 총판

Tel : 02-2653-9007

Mobile : 010-4610-9007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배너광고, 월간 한국사진 광고 중]

H&Y



HD MRC IR ND8/64/1000/500000/1000000

장노출 사진을 위한 필수! H&Y 마그네틱 ND필터



코리아프토프로덕츠, 서울시 중구 동호로 343 2층 T.02-3436-6776 / F.02-3436-6776 / ASSEMB 02-456-6775



방수방진, 부식방지 포세이돈&아테나

Titanium
resistance of sea water corrosion



30 layer carbon fiber leg tubes
Shockproof tube plug

Universal foot option

Titanium alloy feet



코리아포토프로젝트_서울시 중구 을지로 343 2층 T:02-3436-6775 | F:02-3436-6776 | AS센터 02-455-6775



“B+W FILTER” 무한미디어와 함께...

신규 라인업

Titanium
최상의 라인업

MRC nano
나노코팅을 통한 두각물의 극대화

MRC
정밀한 기본기



무한미디어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12, 영헌빌딩 1층
T.02-518-7808 www.muhan8.com





사진, 그 이상을 넘어선 가치



◀ 세계 최초의 T5 Titanium 볼헤드
V10i-Q Titan Edition



◀ Canon EOS-R5, R6 전용
LC-R5 + PC-R5



◀ Sony A7M4, A9 II 전용
LS-A92 + PS-A92



무한미디어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12, 영한빌딩 1층
T.02-518-7808 www.muhan8.com



1만명 전문사진가의 선택! 사진전시 실적 업계1위 두진아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전 동호회 그룹전 개인전 사진인화&액자제작 납품실적 업계1위

사진작가 전용 전시액자 쇼핑몰 두진아트

캔버스랩/아트랩 띄움원목액자 (띄움원목액자는아트랩과 분리재사용) 개인전 프리미엄 최고급 액자



캔버스랩&아트랩 띄움원목액자 / 뒷면후면 모습



캔버스랩&아트랩과 띄움원목액자 크레딧 모습

무반사 아크릴 디아섹 (독일제무반사 아크릴사용)



고광택 아크릴 디아섹 (국내산 정품 아크릴사용)



보급형 중저가 (45,000원대) 아크릴디아섹(국내산 정품) 구비되어 있습니다. * 저가 중국산 품질주의 경보발령 *

캔버스랩/아트랩 띄움액자 (띄움액자는 아트랩과 분리재사용) 개인전 회원전 그룹전 작품액자



아트랩 띄움액자 컬러 (우드,진방,흰색,검정)



아트랩과 띄움액자 교체 분리 재사용



아트랩 띄움액자 뒷면



2022 제7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업체부스 두진아트에서 최고품질의 최신 트렌드의 작품 인화와 액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진아트 TEL 031-314-1085

경기도 서흥시 서흥로 1355 (산천동4동2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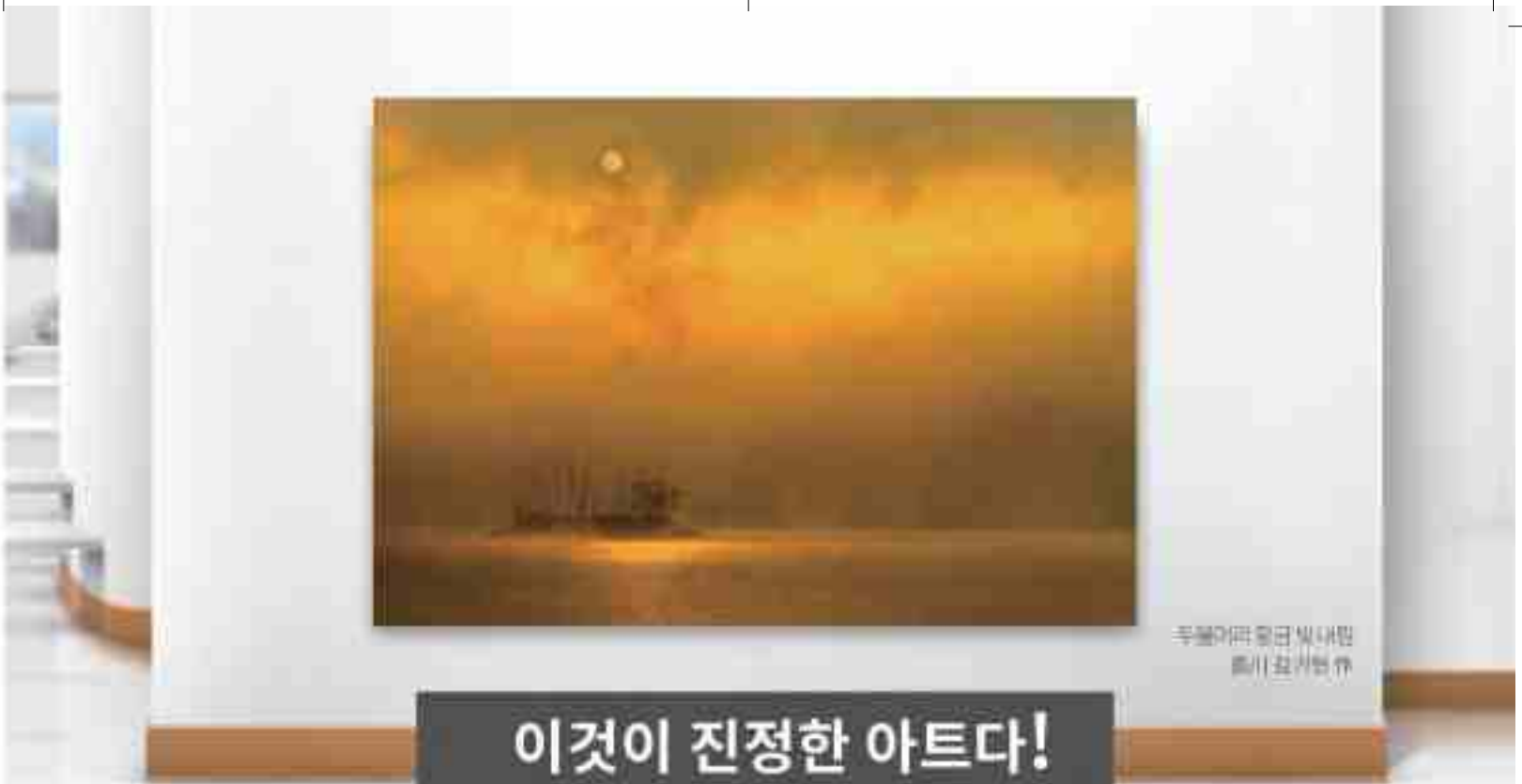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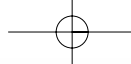
제공사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PC 인터넷 . www.dujinart.com / MO 모바일 m.dujinart.com

NAVER

두진아트





이것이 진정한 아트다!

궁극의 사진표현력, 미세한 디테일까지...

"실제보다 더 실제같은 입체감과 질감"
지클리 프린팅 부드러운 색상의 재현
아트페블릭 인화 지금 경험해 보세요.

캔버스랩 & 아트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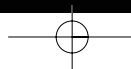


뷰라트 아트페블릭



좌측 아트랩 뒷면 마감 / 우측 아트랩 앞면 원색마감 이미지연장 선택

좌측 뷰라트 뒷면 마감 / 우측 뷰라트 앞면과 앞면 마감



monapark YONG PYONG

이용기간 : 2022.11.1 ~ 2023.2.28 까지

용평리조트

MonaPark 상고대 PKG

패키지 상품 안내

객실 1박

+

발왕산케이블카 왕복권(2인)

[단위 : 천원]

적용일			호텔			타워	빌라콘도			그린 피어	
			디럭스 (2인)	슈퍼스탠다드 (2인) / (08.01.2024 2인)	슈퍼리미어 패방권 (3인)	50 / 50T (3-4인)	28 Py (4인)	41 Py (6인)	48 Py (6인)	25 Py (4인)	38 Py (6인)
로우	11/1~11/30	주 중	111	121	131	101	111	131	141	121	141
		토	141	151	161	131	141	161	171	151	171
하이	12/1~16	주 중	146	156	166	136	146	166	176	156	176
		토	176	186	196	166	176	196	206	186	206
미크	12/17~29 23년 1/8~2/28	주 중	201	211	221	191	201	221	231	211	231
		토	231	241	251	221	231	251	261	241	261
골드	12/30~ 23년 1/7	전세	231	241	251	221	231	251	261	241	261

*그린피어 콘도 기본 마운틴 뷰(솔로프 뷰 선택시 20,000원 추가 금액 발생)

* 12/23~24일, 1/21~23일 주말요금 적용

MonaPark 상고대 PKG 이용안내

1. 상품 구성 : 객실 1박 + 발왕산 관광케이블카(2대)
2. 본 상품은 부분 환불이 불가한 상품입니다.
3. 객실 예약은 02-3270-1219(예약담당자 : 김준호)로 직접 예약하시면 됩니다. (업무시간 평일 9:00~18:00)
* 주말 : 예약실 1588-0009(내선 1번) 토 : 9:00~15:00 / 일요일,연휴 휴무)
4. 다소 구분없이 2인 사용 가능하며 날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운영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용 전 홈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대표전화 033-335-5757)
5. 체크인은 투숙 당일 15:00 이후 가능하며, 예약번호 또는 예약자분 성함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6. 예약 시 선 결제 진행되며 객실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 될 수 있습니다.
7. 예약 변경 및 취소는 이용일 기준 7일전까지 예약센터로 변경,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발생]

No-show 및 당일 취소 50% 청구 / 1일전 취소 40% 청구 / 2일전 취소 30%청구 / 3일전 취소 20% 청구
4-6일전 취소 10% 청구(도착일 기준 위약금 공제 후 환불)

제9회

대구사진 페스티벌

2022
60TH
KOTW DAEGU PHOTO

전시기간 : 2022년 12월 20일(화) ~ 25일(일)
전시장소 : 대구문화예술회관 1~5전시실

DAEGU PHOTO FESTIVAL

대구사진 60주년 특별전 **특별전**

참여작가 13인의 시각 **부스전**

2021년~2022년 입회 작가전 **신진작가전**

제13회 포트폴리오 특별기획전 **기획전**

월간 한국사진 표지 투고작을 모집합니다!

월간 한국사진 표지는 우리 협회의 얼굴입니다.

이에 표지투고 선정작 작가에게 더 많은 지부심과 혜택을 드리고자

표지 선정작가에게 30만원 사진창작활동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단, 선정작가에게 표지는 5부만을 배포합니다. 추가를 원하실 때는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구상, 비구상 뿐만 아니라 현대사진 패러다임의 사진작품이 게재되어

월간 한국사진이 진정 대한민국 대표 사진전문 잡지로

사진예술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 표지 작품성 강화를 위한 개선된 표지투고 선정 방식

1. 표지 작품성 강화를 위해 임원, 지회·지부장 추천 투고 신설
2. 표지가 세로도판인 관계로 세로형 작품 및 작가노트 송실 요망
3. 투고작 심의 - 이사회의회 출판팀 심의 선정
 - ※ 단, 최종 선정된 표지 만고는 월간지 작업시 상황에 따라 의견의 변형이 될 수 있음
(작품원본 변형을 원치 않을 시 투고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 단, 촬영데이터 (Capture Date & Time, Exposure Data S/F Camera, Lens, 장소, Focal Length, Filter, White Balance Temp, Develop Data, Merge(합성) 내용, Panorama, Bracketing(HDR, WB Focus), Interval, Time lapse, Inverted(반전), Tilt, Zooming, Panning, 장노출 등 모든 촬영기법 및 한장기법과 내용을 표지투고시 공개해야 할 선정작에 한해서만 상세시행은 기재되며 미선정작은 공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월간 한국사진 표지원고 투고 방법

웹하드(www.webhard.co.kr) - 아이디 kpsak / 비밀번호 kpsak 접속 후
올리기 전용 -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 추천투고 중 택1 클릭 선택 - 선택 폴더에 투고자
성명 폴더 생성 후 작품명 + 작품형 작가노트 촬영데이터 및 이력사항(연락처) 업로드 요망
※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 마감일 전월 20일 마감입니다.



12월간 한국사진 12월호 표지원고 투고작품



· 이종행
· 낭만의 길



· 손한성
· 나목

사진의 배경을 나뭇잎 색깔과
잔초의 초록색이 서로 대조되도록
대각선 구도로 배치하고, 역광을
등치고 나뭇 가지에서 떨어지는
잎의 인상을 그림자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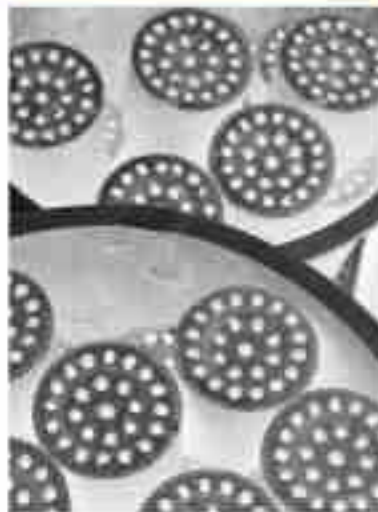


· 홍미선
· 흰



· 손한성
· 해넘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소산한 마음 달래드리고 해변에
서면 저무는 태양은 화려한
등산을 끌어 내리며 조용한 노을을
말들이고, 서안마루 위에서 잠시
고요한 휴식을 취한다. 비록
현명한 청경을 포착하는 순간의
감동은 종교적 신념처럼
두려움의 영역에 침범한다.



· 홍미선
· 추억의 19공판

2022 미분배보상금 사업

(사)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에서 공모한 2022 미분배보상금 공모사업

본 협회 사업 수행단체 기관으로 선정

(사)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KOLAA)는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함을 근거로 지난 10월에 2022 미분배보상금 공모사업을 공고하였다.

보상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비영리 재단/사단법인)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 저작권분야 공익 증진에 노력하는 관련 기관들의 참여를 바라며, 광고를 한 것이다. 이에 본 협회는 사진저작권자 단체로서 사업에 공모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친 후 지난 11월 최종 사업 수행단체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선정된 본 협회 사업에 사진저작권자이자 사업 주체자인 회원님들에게 사업추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전달을 통해 사업 참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사업명

2022 사진공모전 저작물 활용을 위한 등록 공모 시스템 및 사진영상갤러리 확대사업

사업개요

2022 미분배보상금사업 공모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진저작권자 권익보호 및 공익목적에 부합하고자 함에 있다. 본 협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진공모전 체계적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 및 대중들과 사진예술작품 향유를 위한 구축사업을 병행하고자 한다.



2022 사진공모전 저작물 활용을 위한 등록 공모 시스템 및 사진영상갤러리 확대사업

사업목적

1

한국 사진문화 발전 공헌과 사진저작권자 권익옹호

본 협회는 한국 사진문화 발전을 위하여 공헌을 목적으로 하며, 사진저작권자 권익옹호와 지위향상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진공모전을 통해 발표된 사진저작물 UCI 등록

본 사업은 사진공모전을 통해 발표된 사진저작물 통합 관리를 통해 사진저작물 활용성 이색 및 저작물 침해, 도용 등의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3

사진저작권자 원본 사진저작물 2차 저작물 작업 사진영상갤러리 구축

사진영상갤러리 구축 활동을 통해 일반 사진애호가와 대중들에게 수준 높은 사진예술 관련 이가 성취 할유에 기여하고자 한다.

4

국가 사진예술문화 발전 기여

사진저작권자 원본 저작물 확보에 따른 2차 저작물 구축으로 수준 높은 사진예술 관람 이가 성취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사진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업목적

본 협회는 한국 사진문화 발전을
위하여 공헌을 목적으로 하며,
사진저작권자 권익옹호와
지위향상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 미분배보상금 사업

세부수행

사진공모전 저작물 활용을 위한 UCI
등록을 통한 체계적 관리 추진

사업개요

● 세부 추진방향

1. 사업대상 본 협회 본부 및 지회·지부 166곳
2. 사업방법 사업취지 설명 후 공모전 사진저작물 통합관리를 위한 등록 공모 시스템 구축
3. 신청방법 전화신청 가능(02-2652-3131, 3131) 확인 후 참여 지회·지부 신청
4. 사업기간 2022년 11월 8일 ~ 11월 30일

세부내용

● 사진저작물 구축 세부내용

1. 본 협회 본부와 지회·지부 166곳 추후 또는 주관한 발표된 사진공모전 사진저작물 활용 및 통합관리를 위한 등록 공모 시스템 구축안 진행
2. 신청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취지 및 저작물 수집방안 강구
3. 사업통합 추진 사업처 선정
4. 통합관리 추진여부 가능성 및 지속적 연계성 중점 점검 (총 3개년 구축 사업 추진)
 - (1) 본부 및 166곳 지회·지부 대상 적합한 사업취지 설명 가능 여부
 - (2) UCI사업 연계성 및 지속가능성 가능 여부

활용범위

● 사업활용 범위

1. 사진공모전 저작물 활용성 강화 가능
 - (1) 1회성 저작물 활용에 한계성 극복 가능
 - (2) 소셜네트워킹에 접기간 불특정 다수에게 저작물 노출이 가능
 - (3) 검색 기능 강화에 따른 활용성 확대 가능
 - (4) 사진공모전 저작물 완성도가 높은 단계로 사용자 확보 용이
2. 사진공모전 저작물인 관계로 민원제기 및 문제점 해소 방안 가능
 - (1) 사진공모전 심사 후 수상자 발표 이후 저작물 침해, 도용, 표절, 유사작 등 다양한 민원제기에 대한 대응의 근거 마련 가능 (단, 본 협회 자체 공정성을 확보한 공제자 삼의파행회 구성)
 - (2) 지속성, 안정성, 공정성을 확보에 따른 매년 신규 저작물 업로드 가능
 - (3) 본 협회와 협력업체간 상호간 협력에 의한 사업의 연속성 확보로 신약동계 및 UCI 활용 확대

세부수행 II 대중들과 함께 향유하는 온라인 사진영상갤러리 구축 사업

사업개요

● 세부 추진방향

1. 사업 명 : 대중들과 함께 향유하는 온라인 사진영상갤러리 구축 사업
2. 사업개요 :
 - (1) 본 과업은 2022 미분배보상금사업 공모로 진행되는 과업의 일환으로 사업 참여 저작권자의 사진저작물 원본DB 확보 후 2차 저작물 제작에 따른 사진영상갤러리 구축 후 활용 확대하고자 한다.
 - (2) 대중들의 사진예술 문화 향유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방식 관람 확대방안 마련
3. 사업대상자 : 본 사업 참여 회원 사진저작권자

사업내용

● 세부내용

1. 사업참여 회원 사진저작권자가 제출한 저작물 원본DB 구축
2. 사진저작물 원본DB 체계화 구축 후 저작권사 권위보호 및 저작물 활용(UC방금) 확대 추진
3. 구축된 원본DB 사진저작물들 활용에 2차 저작물 제작을 위한 사진영상갤러리 제작 진행
4. 2차 사진갤러리 저작물 제작 완료 후 개설된 기존 계정명령을 통한 On Line 인스타그램, 소셜 네트워크 홍보활동 적극적 진행
5. 본 협회 자체 홈페이지 및 온라인 갤러리 사이트에 사진 갤러리 링크 연결을 통해 On Line 비대면 온라인 전용 일반 사진에셋기, 대중들을 상대로 사진갤러리 관람 확대 진행

추진방향

● 사업활용 범위

1. 사진저작물 원본DB 및 2차 저작물 구축 결과를 신비동재
2. 2차 저작물 온라인 사진영상갤러리의 구축 결과물을 본 협회 On Line 개칭 등재에 따른 사진예술 갤러리 관람 편의성, 대중성 추진
3. 사업참여 사진저작권자 포트폴리오 형태의 2차 저작물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
4. 온라인 사진영상갤러리 확인만으로도 저작권자의 저작물 집중관리 가능

2022 미분배보상금 사업

신탁등재는 내 사진저작물 보호의 시작입니다.

신탁자 등재 절차에 따라 등록이 가능!

본 협회는 2022년 11월 부터 2022 미분배보상금사업 공모 수행 사업자 선정에 따라 본 협회 회원들은 관련하여 사업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6월까지 진행됩니다.

아래와 같이 신탁등재 안내를 드리오니 순서에 따라 등재는 사진저작물 권리침해 방지 및 저작물 보호의 시작입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등록에 동참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저작권 신탁등재 전산화 등록방법



- 1**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1
- : 본 협회 홈페이지 접속
 - : 로그인 창에 회원번호 비밀번호 로그인 실행
 - : 해당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배너광고 클릭



- 2**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2
- : 대한문화예술저작권협회 KOLAA 이미지뱅크 스킴등록 이동
 - : 신탁등재 개인정보 및 약관 숙지 요청
 - : 최종 이용의견 동의 체크 후 오른쪽 확인 키 클릭

3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3

- : ①~⑤ 순번 대로 필수 입력사항,
단 ⑥번 필명은 선택사항
- : ⑦번 소속단체는 고정 값
- : ⑧~⑩번 입력 조건
- : ⑪번은 전화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클릭 필수

4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4

- : ①번 해당 주변등록번호 입력
- : ②번 주소검색 클릭 후 주소광업 검색창에 주소 입력 후
해당주소 클릭
- : ③~④번 순서대로 입력 진행

5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5

- : ①번 계좌번호 입력
- : ②~③번 해당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이미지 데이터 첨부
- : ④번 255자 이내의 개인 프로필 입력, 입력사항 위주
- : ⑤번 모든 입력사항 완료 후 가입하기 클릭

- ※ 신탁등재 전산 회원가입이 완료 후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등재 담당자의 등록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 ※ 최종 등록승인 접차 완료 통지 후 코라 이미지(www.koraimage.com)로 접속 로그인 후 사진저작물등록이 가능합니다.

1. [작가]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사진저작권자 등록 신탁등재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필수 기입 사항 입력 후 가입신청
2. [관리자] 신청확인 후 기입정보 토대로 입회신청서 및 저작권위탁 신청서 각 1부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발송
(매일 미확인 시 작가는 연락처로 문자안내 및 유선 안내 드립니다.)
3. [작가] 각 신청서 검토 후 서명날인하여 관리자에게 회신
4. [관리자] 확인 후 정회원 승인
5. [작가] 코라 이미지 사이트(www.koraimage.com) 저작물 등록 가능(최대 5개) 이후
추가 등록물은 본 협회 사진저작권 담당자에게 전달 또는 문의요망 (02-2665-3137)

서울산책

- 10명의 산책자들을 통해 본 세월의 간극

글, 사진제공_박옥수(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자문위원, 중구지부)

SPACE22는 12월 2일(금)부터 2023년 1월 31일(화)까지 〈서울 산책〉전을 개최한다. 12월 22일로 개관 9주년을 맞는 SPACE22는 그동안 수집해 온 서울 기록 작품 중 50장을 선별해 전시를 준비하였다. 이번에 전시되는 임응식, 이형록, 김한용, 한영수 등 10인의 작품들을 통해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의 과거와 당시 한국 사진의 경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역사는 혹은 사진은 두 시점의 간극이 존재한다. 실제로 사건이나 행위가 일어나 기록한 시점과 그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점이 그것이다. 현재는 흔적을 남기며 과거가 된다. 그리고 그 과거는 변하지 않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현재와 끊임없이 상호 작용한다. 이번 전시는 그 두 시점의 간극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관객들이 작가들의 시선을 따라 서울을 산책하는 플라노르(Flaneur)가 되어 전시장을 돌아 보면 그동안 잊혀졌던 과거의 모습들, 너무나 익숙하여 의식하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이 존재했음을 확인하고 숙명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 사라질 수 밖에 없는 현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SPACE22는 이번 전시를 통해 시간과 함께 더해지는 사진의 힘을 공감하고 사진이 증명하는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의미와 보이지 않은 시간의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전시작가 : 임응식, 이형록, 김한용, 한영수,
홍순태, 한정식, 김기찬, 전민조,
박옥수, 김녕만
전시기간 : 2022년 12월 2일(금) ~ 2023년 1월 31일(화)
전시장소 : SPACE22
관람시간 : 화~토 11:00~19:00
(단, 일, 월요일, 국경일 휴관)
전시자료 및 문의 : SPACE22 (02-3469-0822)



©박옥수, 서울 남대문시장, 1969



©임응식, 서울, 1950년대



©한영수, 서울 한강, 1957-1960



©홍순태, 참실, 1969



©한정식, 서울 돈화문, 1972



©이형록, 서울 남대문시장, 1956



©김한용, 서울 아현동고개, 1950년대



©김영만, 서울 송파, 1981



©김기찬, 서울 중림동, 1982



©전민조, 서울 중랑교부근, 1972

생장소멸하는 자연, 정지화면에 담다 생명의 빛

이 인 우(대구)

젊은 시절부터 촬영에 몰입했던 순간들을 되새기며 그 원고들을 정리하였다. 내가 초점을 맞춘 사진의 주제는 자연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고귀함이다. 같은 것 같지만 서로 다른 고유한 형태와 색상, 그리고 생존방식의 차이에 경이로움을 느꼈다.

나의 관심은 광활하고 거대한 세계가 아니라 아주 작고 평범한 사물들이다. 떨어지는 꽃잎과 물의 미세한 흔들림, 새싹이 트는 봄날의 향기, 바위 틈에서 생존하는 미세한 식물들, 길가에 텃구는 낙엽들이 가지는 가을의 정취, 시멘트 담 벽에 기생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기생식물들, 겨울철

얼어붙은 호수의 결빙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질감과 형상 등등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존재들이고 대부분 스쳐지나가는 것들이다. 나는 그 속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조형성, 사물과 빛의 어울림, 그 속에서 보여지는 미학적인 요소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나는 사진을 촬영하면서 정지된 이미지에 시간성을 부여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사진 속의 물체들이 스스로 생장과 소멸의 반복을 통해서 새롭게 변신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정년퇴임을 하면서 무언가 의미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전시를



©이인우_ 생명의 빛 - 2020 양산



©이인우_생명의 빛 - 2019 동촌



©이인우_생명의 빛 - 2020 영천

준비하였다.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생명의 신비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전시가 교직생활의 시간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사진작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을 확신한다. 아울러 더욱 창작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본 협회 대구지회 소속 이인우 자문위원은 정년퇴임 기념으로 생명의 빛 사진전을 2023년 1월 30일(월) ~ 2월 5일(일), 대구 대덕문화전당 1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전시오픈 초대일은 2023년 1월 30일(월) 오후6시이다. 다가오는 이인우 정년퇴임 기념전 - 생명의 빛이 기대되는 바이다.

Photo Essay 01



©이인우_ 생명의 빛 - 2021 영천



©이인우_ 생명의 빛 - 2021 경주



©이인우_생명의 빛 - 2021 영천



©이인우_생명의 빛 - 2018 성주 숲숲

‘똑딱똑딱’ 히로애락 추억돼 흐르고... 시간은 보물이 된다

이 장 희(밀양)



©이장희 시계1

지나간 시간은 추억이 되고, 그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 지고 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시간은 흘러간다. 그 시간 속에 즐거움과 괴로움과 슬픔과 기쁨이 있고, 나와 가족과 얹혀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

어릴 적 가난 때문에 도시락도 근근히 싸주신 어머니, 공납금 못 내어

학교에 못갈까 노심초사하신 아버지, 내동생 사내라고 항상 먼저 자리를 내어준 누나들, 어릴 적 친구들, 개울가 뛰놀던 우리동네, 학교운동장, 언젠가 철이 들어 회상해 보면 어느 듯 지워지지 않는 그림으로 가슴에 박혀온다.

시간은 그렇게 또 흘러간다. 언젠가 또 그렇게 내 마음 속에 다른 그



©이장희-시계4



©이장희-W.C-2



©이장희-W.C-1

림이 그리어 지겠지... 지금도 내 인생의 보물같은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것은 평범한 진리.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며, 미래는 알 수 없다. 오늘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보물이며, 그 보물을 후회 없이 사용하길 바라며...



©이장화-시계2



©이장화-시계3



©이장화-시계5



©이장화-W.C-3

Photo Essay 02

찢긴 생채기 아물고, 생명이 싹튼다 매항리 54년 간의 기록

임 삼 진(수원)

아픔이 가득한 이곳 매항리,
피사체 느낌으로 간결하게 찍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하여 마음이 아련하니 머리만 아팠다.

그러던 어느날,
피사체를 입체형식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라이트를 사용해보니,
피사체에 힘이 실리고 집중도가 높아졌으며,
감상하는 이로 하여금 마음에 풍성한 상상력을 줄 수 있는
작품이 되었다.

매항리의 미군부대 사격훈련장은 54년만에 완전히 폐쇄되었고,
지금은 평화역사관과 유소년야구단지인 화성드림파크,
평화 생태공원이 조성되었다.

자연현상은 세월에 의해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지만
여기,
이곳 매항리는 누군가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 작가노트 —



©임삼진_ 54년간의 기록



©임삼진_ 54년간의 기록#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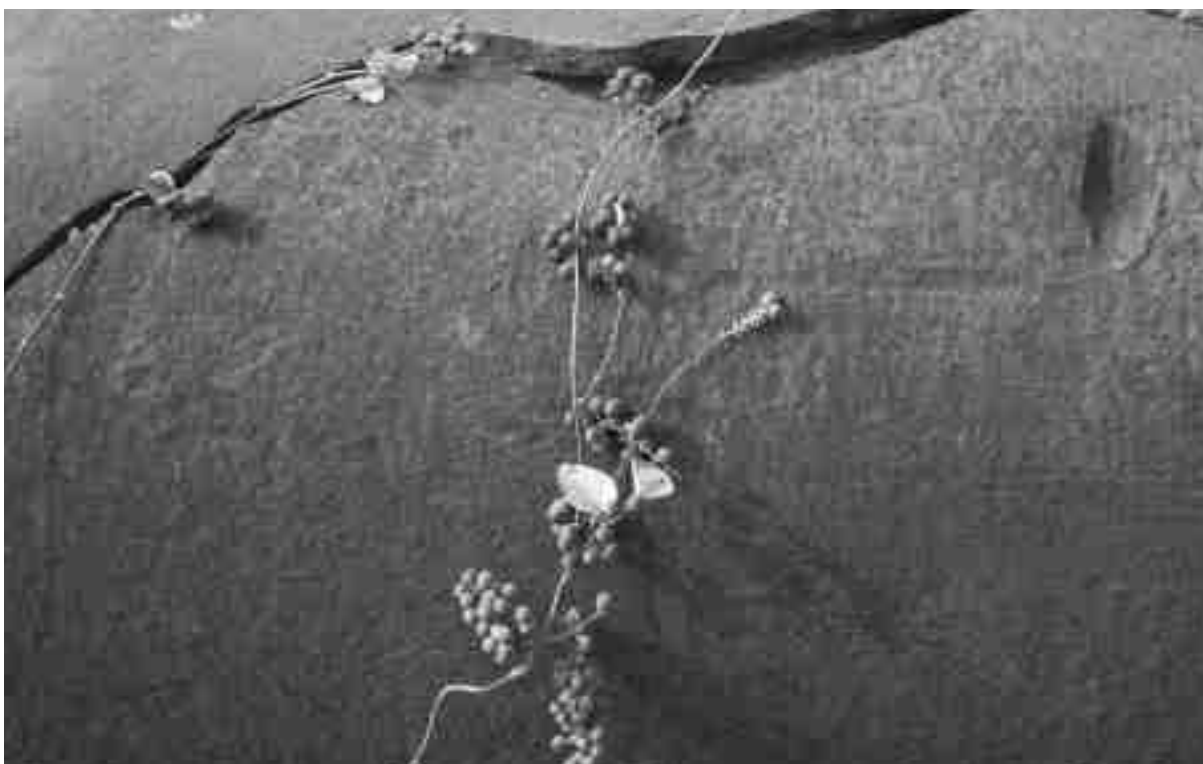
©임삼진_ 54년간의 기록#10



Photo Essay 02



©임삼진_ 54년간의 기록#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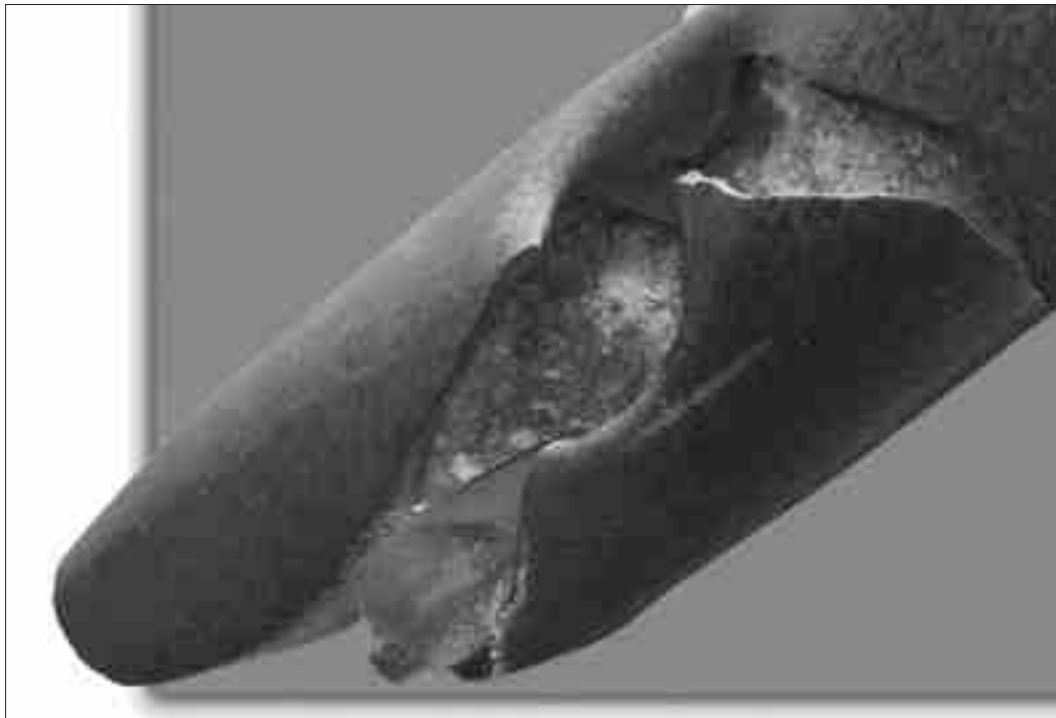
©임삼진_ 54년간의 기록#5



©임삼진_ 54년간의 기록2. 004



©임삼진_ 54년간의 기록#11



©임삼진_ 54년간의 기록#9

크리스 맥카우 사진전

Chris McCaw 'Into the Sun'

글 · 사진제공_김재훈(종로구지부) - 사진가, 전시플래너, 프린트마스터



전시장 전경 - 닷미술관

2012년 '닷프레스'에서는 <빛으로 간 사진 - Tracing Light> 라는 제목으로 빛을 작업의 소재로 해서 아날로그 사진 재료를 사용해 그 본질을 표현하고자 하는 '린다 코너(Linda Connor)', '클리아 맥키나(Klea McKenna)', '벤 닉슨(Ben Nixon)', '크리스 맥카우(Chris McCaw)' 4인의 특별전시를 한 적이 있었다. 그 중 크리스 맥카우는 태양이 있는 풍경 앞에서 카메라의 셔터를 열고 빛의 긴 궤적으로 인화지를 태우는 방식의 독창적인 작업들을 소개해서 주목을 받았다. 닷미술관에서는 빛으

로 간 사진전의 10주년을 기념해서 크리스 맥카우의 작업을 다시 제대로 소개하는 전시 <Chris McCaw, Into the Sun>을 개최하였다. 2023년 1월 15일까지 계속되는 이 전시에서는 2012년 이후 10년간 사진 매체에 대한 자신만의 태도와 방식을 꾸준히 지키고 확장하며 현재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독보적인 현대 사진가 자리를 차지한 크리스 맥카우의 작업을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즉흥적이고 순간적으로 소비되는 사진이 만연한 현대의 우리에게 사진 매체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



전시장 전경 - 닷미술관



전시장 전경 - 닷미술관

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닷 미술관에서 제공해 설명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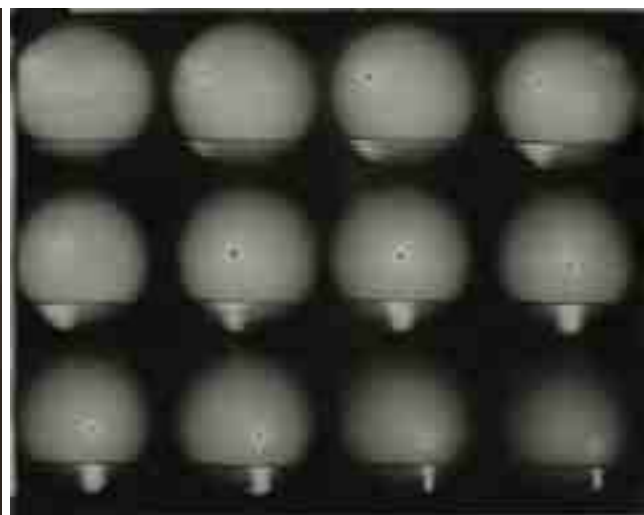
크리스 맥카우는 대형 카메라를 직접 개조하여 필름을 넣는 자리에 빈티지 인화지를 넣고 렌즈를 통해 들어온 태양이 인화지를 태우는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특정 공간에서의 오랜 노출로 태양의 느린 움직임을 담아내는 인화지는 그 자체로 유일무이한 네거티브 원본 작품이 됩니다. 이 같은 아날로그 제작 방식은 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사진에 대해 생각 해볼 다양한 지점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한 시공간의 태양 움직임을 담

아낸다는 점에서 사진 고유의 기록성을 가지며, 서로 다른 감광성을 가진 빈티지 인화지와 작가의 개입 없는 긴 노출로 의도치 않게 촬영된 요소는 사진의 우연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특성은 크리스 맥카우의 아날로그 사진 제작 실험에서 주요한 부분으로 작동하며 현대 디지털 사진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고전적 감수성을 자아냅니다.

‘선번 Sunburn’은 태양이 떠오르거나 지는 선적인 움직임을 그대로 태워 만든 작가의 대표적 시리즈이자 시작입니다. 2000년대 초 별을 촬영하기 위해 장노출을 하다 미처 닫지 못한 셔터에 들어온 아침 태양 열이 필름을 물리적으로 변형시킨 것을 목격한 뒤부터 작가는 사진에 새



©Chris McCaw, Sunburned GSP #138 (SF Bay/Pacific Ocean-Sunrise/Sunset, the first day of Fall #2), 2007, 16"x20" unique gelatin silver paper neg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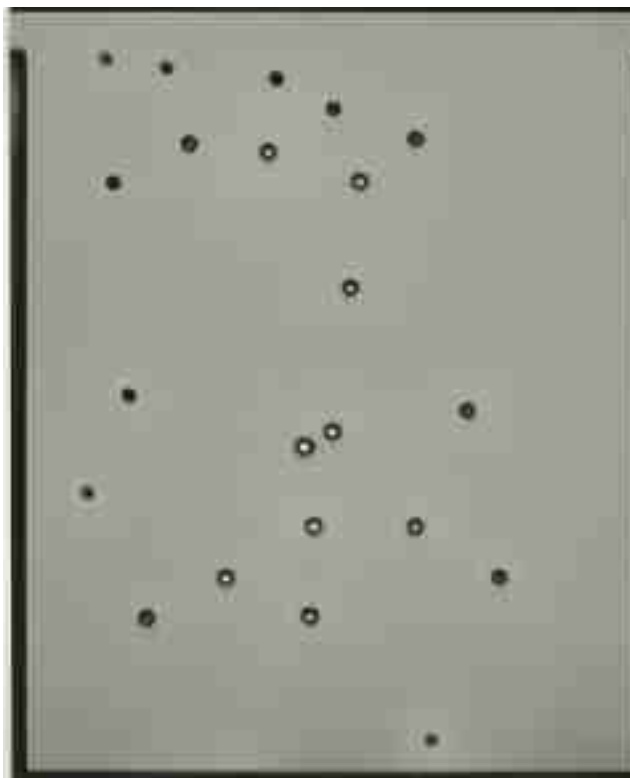


©Chris McCaw, Poly-optic #2, 2011, 8"x10" unique gelatin silver paper negative

Review & Preview



©Chris McCaw, Sunburned GSP #1032 (Mojave), 2019, 20"x24" unique gelatin silver paper negative



©Chris McCaw, Heliograph #149, 2020, 11"x14" unique gelatin silver paper negative

롭게 접근하며 아날로그 사진 제작을 본격화하였습니다.

‘헬리로그라프 Heliograph’ 시리즈는 그리스어로 태양의 뜻을 가진 Helio에서 제목을 가져온 것으로, ‘선반’ 시리즈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시공간에 일어나는 태양의 궤적을 한 인화지에 태운 작업으로 선반의 단일 선 작업보다 추상적 조형성이 돋보입니다.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때로는 다른 계절까지 조합하며 선반에서 확장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주력합니다.

‘폴리옵틱 Poly-Optic’ 시리즈는 카메라에 렌즈를 여러개 배치하여 한 장소에서 태양의 흔적을 다중 원형 이미지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최

대 63개 렌즈까지 부착하기도 하며, 각 렌즈의 조리개를 조절하여 태양 궤적을 또 다른 방식으로 촬영합니다. 폴리옵틱은 헬리로그라프 시리즈와 더불어 아날로그 사진 실험에 대한 작가의 과학자적 태도가 돋보이는 작업입니다.

전시장 한 가운데 곡선 벽을 타고 길게 가로지르는 작품은 ‘서킷 Circuit’ 시리즈입니다. ‘서킷’은 그 자체로 돌아가는 카메라(rotating camera)를 의미하는데, 작가는 이를 역시 개조하여 한 장소에서 길게는 80여 시간까지 장노출하며 태양의 긴 호흡을 담아냅니다. 전시된 작품은 작가가 알래스카에 머무르며 3박 4일간 태양이 뜨고 지는 장면을 촬



©Chris McCaw, Sunburned GSP #962 (Pacific Ocean, sunset in 10 frames), 2017, ten 11"x14" unique gelatin silver paper negatives

영한 것으로, 자연의 교묘하며 거대한 움직임을 우아한 선율의 곡선으로 재현한 작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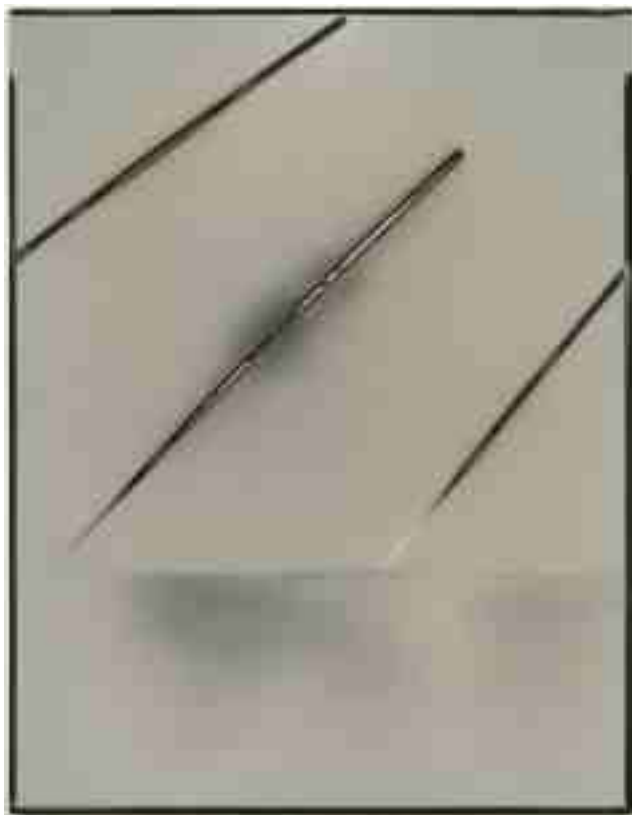
작은 방에 전시된 '타이달 Tidal' 시리즈는 오랜 노출로 서서히 만들어진 해안의 독특한 풍경입니다. 20세기 미 서부 사진가 윈 벌록(Wynn Bullock)의 해안 사진을 연상시키는 이 시리즈는 실제 서부 자연의 원초적이고 영적인 기운을 담아내는 데 물두한 윈 벌록의 사진 정신을 계승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이 시리즈는 풍경 안의 태양 빛과 열이 사진 화학 작용과 만나면서 만들어진 이미지로 작가의 사진 탐구가 또 한 번 확장된 것입니다. 장노출에 의해 생긴 빛 반전(solarization) 부분은 메탈릭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 마치 다른 차원의 공간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크리스 맥카우의 사진은 기본적으로 자연, 그 중에서도 태양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태양 빛을 넘어 뜨거운 열이 인화지를 태우는 이 강렬한 작업은, 파괴적인 동시에 창조적인 작품이 되어 태양의 고대 유물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작가가 사진 매체의 역사적 원리와 의미

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사진의 근원을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아 연구, 확장하였기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기록성과 우연성을 바탕으로 매체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평면성이라는 사진의 기본 틀을 과감히 깨고 물성있는 오브제로 전환하는 크리스 맥카우의 작업은 현재 사진계에서 매우 의미있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탐구 정신은 크리스 맥카우의 작업을 계속해서 당대 유효한 현대적 작품으로 존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 강민정, 닷미술관 학예실장

대중들 사이에서는 아날로그 작업이 새로이 유행으로 돌아오고 있다. 필름사진기를 가지고 다니며 촬영 후 결과물을 대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아날로그 작업방식의 향수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물리적인 현상과정 안에 담겨있는 시간과 공간, 재료와 프레임들을, 작가의 과학적 태도와 자연의 우연성이 포함된 결과물에서 생기는 고유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자. 순간의 시간에 무한의



©Chris McCaw, Heliograph #44, 2014, 11"x14" unique gelatin silver paper negative



©Chris McCaw, Sunburned GSP #450 (SF Bay), 2010, 8"x10" unique gelatin silver paper negative

Review & Preview



©Chris McCaw, Sunburned GSP #582 (Mojave with sweat), 2012, 20"x24" unique gelatin silver paper negative

복제와 수정이 가능한 지금의 시대에 역행한 작품, 많은 시간을 거쳐 나오는 한 마리뿐인 네거티브에서, 나는 내 작품의 가치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전시 외에도 닻미술관에서는 프레임이라는 야생정원과 함께한 전시공간을 새로 만들어서



프레임 전시장 전경 - 닻미술관

개관전으로 <생의 기억 (Life Signature)>를 1월 15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진새골 숲의 소리를 채집한 김준 작가의 설치 작업과 야생정원의 빛을 담은 조성연 작가의 사진 작업을 엮어 프레임이라는 공간아래 재구성한 전시를 꼭 같이 경험하시기를.

‘사진전은 전시전문가와 준비하는 겁니다’

파인아트 프린팅

사진의 품질은 작가가 아니라
프린트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같은 사진가의 눈으로 상담하고
프린트한 작품에 책임을 집니다.

사진전시 컨설팅

전시작품의 선택과 보경부터
포트폴리오, 홍보, 작품제작,
디스플레이 및 전시 철수 까지
전시의 모든 것을 상담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22-1번지 2층 김재훈 010)9916-8814, 02)6081-0221

사진하다



www.studioclub.co.kr



구매상담
ID: 신지스튜디오클럽
010-2253-2786

별첨한 사진이
진짜이다

SINJI
studioclub

(주)신지스튜디오클럽

사진가를 위한 폐쇄형 인증제 쇼핑몰

포토프린터

EPSON **Canon**
EXCEED YOUR VISION

미니, 배터리 휴대용, A4무한경첩, A4포토복합기
A3 전문가용 포토프린터, A2 ~ 64인치 대형

포토페이퍼, 정품잉크

EPSON **Canon** **SINJI**
EXCEED YOUR VISION studioclub

대여 프로그램

축제, 행사, 무상대여 / 02)790-1310

실적



(사)한국사진찍기협회 지정 우수업체



전국 스튜디오 8,000여 개점



전국 예술학부 1,000여학과 납품

진실은 글보다 카메라, 세상 바꾼다 사진의 생명력

글 · 사진제공 _ 최승언



글은 오랫동안 권력자들의 독점물이었다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 이 속담은 말이 사람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우친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까지 있고 보면 한마디 말이 갖는 힘을 알 수가 있다. 여기에서 말 한마디는 입에 발린 것이 아니라 진실을 담은 말이다. 진실한 마음이 전달 되어야 천냥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 애초 천 냥이나 빌려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진실한 사람이 있음을 뜻한다. 돈 있는 사람이 아무에게나 천 냥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 됨됨이를 보고 빌려준다. 평소 하는 말과 행동으로 미루어 빌려줘도 떼먹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천 냥이든 백 냥이든 빌려줄 것이다. 믿을 만해서 융통해주었는데 기한이 되어 갚으라 했더니 '배째라' '한다면 그 배신감을 어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좋은 예가 최근의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이다. 강원도개발공사가 "2,050억 원의 대출금 중 412억 원이 자체상환 불가능하다"며 회생절

차를 발자 금융대란이 일어났다. 이일로 해서 한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만기 채권은 도미노처럼 유찰되는 일이 벌어졌고 위기를 느낀 정부가 50조에 달하는 유동성 자금을 긴급편성하는 일이 벌어졌다. 412억 때문에 회생절차 운운하다가 50조가 넘는 자금을 마련하고도 위기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은 게 신용의 속성이다.

지자체 단체장의 실수로 인해 호미로 막을 수 있던 것은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보면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다.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어서 천 냥 빚을 탕감해줘도 손해가 아니다. 진실한 사람은 빚을 탕감받고 입 싹 닦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보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빌려 준 이도 그걸 알기에 천 냥이나 되는 빚을 탕감해줄 수 있다.

1960년대 한 강원도 사람이 상경해 어렵게 돈을 빌려 회사를 차렸



이집트 상형문자 헬리오그래피, 그림에 가깝다



팔리 불경

다. 고리대금업자에게 빌린 자금으로 사업이 잘되나 싶더니 화재로 공장이 홀라당 다 타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그는 돈 빌려준 사람을 찾아갔다. 가서 사정을 말하고 그 고리대금업자에게 또 다시 사업자금을 빌려 재기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내로라하는 재벌로 성장할 수 있었다. 현대그룹을 일으킨 정주영 회장의 얘기다.

말 한마디로 인해 모든 빛을 탕감받고 또 추가대출에 성공한 사례라 하겠다. 정회장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기보다 꼭 갚을 수 있다는 진실한 마음을 보였다. 이처럼 진실한 말은 통한다. 사람이 쓰는 말을 관찰하면 그 사람이 보인다. 사람은 바로 말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간다고 했다. 말의 전파력을 조심하라는 얘기다. 내가 뱉은 말은 이제는 천 리가 아니라 순식간에 지구 끝까지라도 가는 시대가 되었다.

세 치 혀가 사람은 죽인다고도 했다. 실제로도 인터넷에 퍼지는 말로 인해 사람 죽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요즘 세태이다.

도대체 말이란 무엇이기에 그토록 큰 영향력을 발휘할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뿐이다. 짐승도 소리를 내서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하지만, 짐승의 소리를 말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오히려 짓

Travel destination



하늘의 말씀을 받아 제자들을 가르치는 예수

는다고 하고 울부짖음이라고 해서 사람의 말과 구분한다.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며 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고 적고있다. 곧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한다.

예수가 이 말씀을 받음으로써 전 세계 20억 인구를 움직이는 기독교가 만들어졌으니 말씀의 힘이 실로 강력하다.

공자는 50세에 지천명했다. 하늘의 명령을 깨달은 그는 아침에 도(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으니 여기서 나오는 도(道)는 말씀이다. 한자 사전에도 도(道)는 길도, 말씀도라고 밝히고 있다.

춘추시대를 살았던 공자는 하늘의 말씀을 깨닫고 주유천하한다. 하늘에서 받은 인의예지를 설파하며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고자 했다. 그가 받은 말은 유교가 되었고 동양에서 왕도정치의 근간이 된다. 공자가 세상 떠난 지 2600년이 지났지만, 그로 인해 조상에 제사를 지내는 유교문화가 퍼졌으니 하늘의 말씀은 이토록 강력하다. 석가모니 붓다는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는 말씀을 들고 나왔다. 세상에서 오직 내가 존귀하다는 이 생명존중의 말씀을 기본으로 불교가 만들어졌다. 내가 오직 귀하니 남도 존귀하다는 이 말씀은 세



양피지 두루마리에 쓴 히브리어 성경

계에 퍼져 강력한 말씀의 힘을 증명해 냈다.

이처럼 하늘의 말씀을 받거나 깨달은 예수, 붓다, 공자를 우리는 선지자 또는 선각자 또는 구원자라고 한다. 이들이 설파하고 전한 말씀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 말씀들이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글이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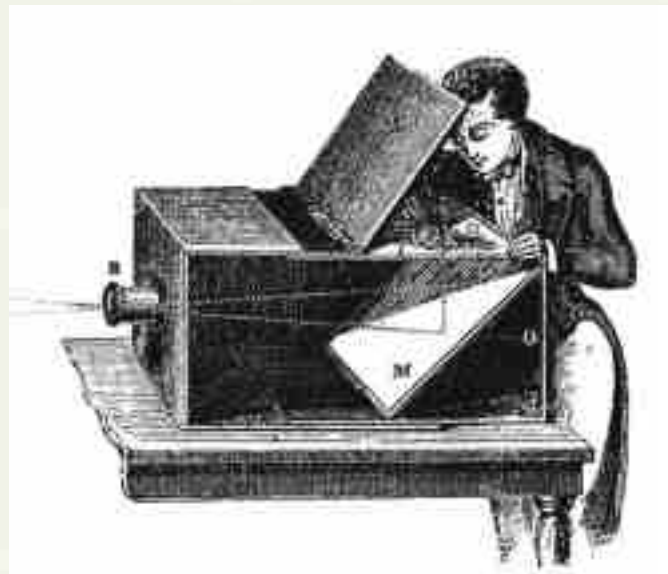


인의 예지를 설파하며 주유천하했던 공자

글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게 하고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말 것을 영원히 기록한다.

따라서 기록한 글은 우매한 자를 깨우쳐 지식과 지혜를 선물한다. 옛날에는 글은 지배층이 독점하고 백성들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았다. 권력은 늘 글을 배운 자들의 것이었다.

글을 모르던 백성들이 글을 알게 되고서야 권력이 백성들에게 넘어간 것은 유구한 인류역사로 볼 때 최근의 일이다. 글을 배운 백성들이 눈을 뜨고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 우리 헌법에도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못 박아 놓고 있다. 이처럼 지식전달의 매개체, 글은 백성을 깨우쳐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에 중요하다. 요즈음은 이 글보다 더 영향력 있는 매체로 사진이 각광 받는다.



그림을 잘 그리려는 목적으로 발명된 사진, 지금은 글보다 더 효과적인 지식전달 수단이 되었다

글은 그림에서 발달했고 사진은 그림을 더 빨리 잘 그리기 위해 발달했다.

사진이 오늘날 글보다 더 탁월한 소통수단이 되면서 사진을 다루는 이들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되었다.

한 장의 사진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이유가 사진이 말을 전달하는 최고의 매체이기 때문이다. 진실한 말도 있고 거짓된 말이 있듯이 사진 또한 거짓된 사진이 있고 진실한 사진이 있다. 사진인들이 사리사욕에 빠지면 거짓된 사진을 찍는 유혹에 빠진다.

좋은 사진은 거짓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 즉 진리를 전달하고자 할 때 만들어진다. 고통받는 인간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는 사진이 생명력을 얻는 이유다.

그러므로 사진인들은 진실한 사진을 촬영해야 하고 그러자면 스스로 진실해야 한다. 공의로운 사람은 공정한 사진을 찍을 것이나 불의한 사람은 거짓된 사진을 찍을 것이다.

한마디 진실한 말이 천 냥 빛을 갚을 힘이 있듯이 한 장의 진실한 사진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

책 모듈에서 나만의 작품집 만든다 - 1

글 · 사진 백종수(주산지) / 디지털 사진 교육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 jusanji@jusanji.co.kr / www.lightroom.kr

지난 10, 11월호에서는 [슬라이드 쇼] 모듈에서 슬라이드 쇼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12월 호와 2023년 01월 호에서는 [책] 모듈에서 나만의 작품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니다.

나만의 작품집을 직접 만드는 [책] 모듈

라이트룸 클래식스의 [책] 모듈에서는 카탈로그에 등록된 사진으로 빠르고 쉽게 자신만의 작품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리 디자인된 다양한 레이아웃과 템플릿이 제공되므로 사용자는 필름 스트립의 사진을 편집 화면에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한 책은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전자책으로 만들거나, Blurb에 의뢰해 종이책으로 제작해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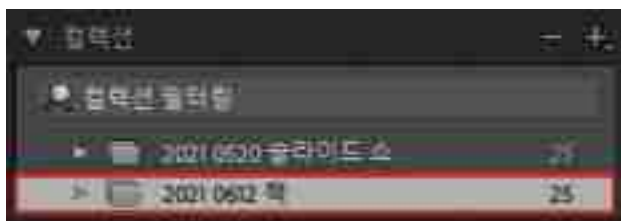


[책] 모듈 편집 화면

라이트룸 클래식스의 작품집 제작 워크플로우

Step 01. 책 편집에 사용할 사진을 컬렉션으로 구성합니다.

라이트룸 클래식스에서 책 또는 작품집을 만들려면 [책] 모듈에서 진행



합니다. 모듈 작업의 시작은 사용할 사진을 컬렉션으로 미리 분류해 놓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처럼 책 작업에 사용될 표지, 내지, 배경 사진을 컬렉션으로 분류해 놓습니다.

Step 02. [책] 모듈로 전환하고 책의 기본 레이아웃 동작을 설정합니다.

처음으로 [책] 모듈을 실행했다면 [책] 모듈에서 [책] > 책 환경 설정]을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과 같은 [책 환경 설정]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책] 모듈의 환경 설정은 한번 설정하면 다른 책 작업에도 같게 적용됩니다.



① 레이아웃 옵션

레이아웃은 [사진 셀]과 [텍스트 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진 셀]에 사진이 표시되는 방법을 설정합니다. [화면에 맞게 확대/축소] 또는 [일맞게 확대/축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옵션이 설정되었더라도 [편집] 창의 사진을 우클릭해 표시되는 단축 메뉴에서 [셀에 맞게 사진 확대/축소]를 선택하여 환경 설정을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셀에 표시되는 사진을 확대/축소할 때는 선택한 사진 위에 표시되는 [확대/축소] 슬라이더로 조정합니다. 그러나 셀의 크기나 모양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진을 클릭한 후, 사진 테두리에 표시되는 핸들러로 셀의 크기와 모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자동 채우기 옵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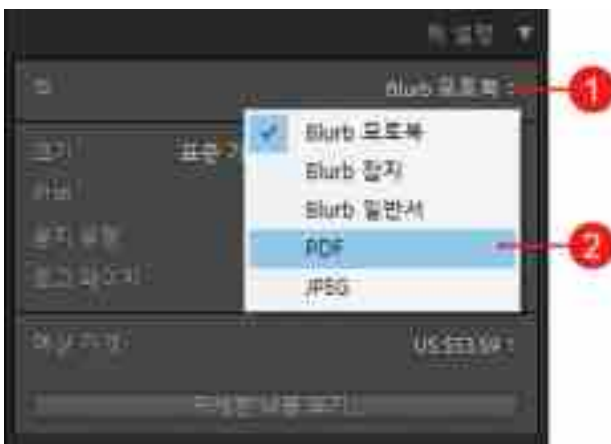
[책] 모듈로 전환되면 [자동 레이아웃] 패널의 [사전 설정]에 설정된 레이아웃으로 페이지가 자동 구성됩니다. 페이지가 자동으로 구성되지 않게 하려면 이 옵션을 해제합니다.

③ 텍스트 옵션

[텍스트 셀]이 포함된 레이아웃의 경우 미리 표시될 텍스트를 설정합니다. [필러 텍스트]를 설정하면 레이아웃을 미리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진의 제목이나 캡션 또는 파일 이름과 같은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책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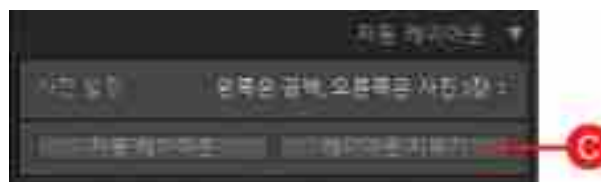
[책 설정] 패널에서 편집할 책의 유형을 설정합니다. [Blurb 포토북, 잡지, 일반서]는 종이책을 제작할 때 사용하지만 편집한 결과물을 PDF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으로 저장하려면 [PDF]를 선택하고, 페이지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려면 [JPEG]를 선택합니다.



Step 04. 책의 내지 레이아웃을 설정합니다.

[책] 모듈로 전환되면 [자동 레이아웃] 패널의 [사전 설정]에 설정된 항목으로 표지와 내지의 레이아웃이 자동 적용됩니다. [책] 모듈 환경 설정에서 [자동 채우기] 옵션을 해제해 놓았다면 빈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자동으로 적용된 레이아웃을 지우거나, 다른 레이아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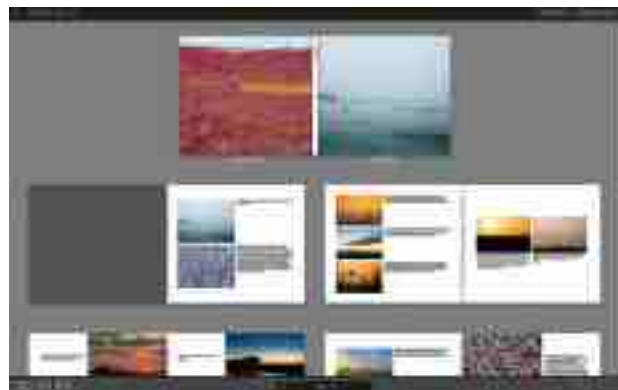
[사전 설정]으로 설정해 레이아웃을 새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 사용할 레이아웃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고 임의의 레이아웃을 페이지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별로 다르게 레이아웃을 구성하면 하나의 레이아웃으로 구성된 페이지에서 느껴지는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페이지



Lightroom

의 레이아웃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레이아웃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STEP 05. 내지를 편집합니다.

[텍스트 셀]이 포함된 레이아웃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유형] 패널에서 텍스트의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페이지의 번호 표시 여부를 설정하고, [유형] 패널에서 텍스트의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사진 텍스트]는 사진마다 설정할 수 있는 텍스트로 레이아웃의 [텍스트 셀]과 별도로 사진의 제목이나 촬영정보 등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또한, 레이아웃에 [텍스트 셀]이 없는 경우 사진에 대한 부가 설명을 표시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텍스트]는 페이지별로 텍스트를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앨범의 소재목이나 페이지의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ep 06. 책의 커버를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의 커버 레이아웃과 텍스트를 설정합니다. 커버 레이아웃은 내지와 달라 별도로 설정합니다. 다양한 커버 레이아웃에서 선택해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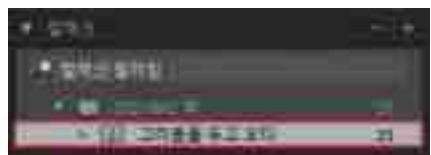


[텍스트 셀]이 포함된 레이아웃의 경우 책의 다양한 정보(작가명, 출판사, 판권 등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고, [페이지 텍스트]로 책의 제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Step 07. 작업한 내역을 저장합니다.

표지까지 편집하였으면 [책 모듈] 컬렉션으로 저장합니다. [책 모듈] 컬렉션은 편집에 사용된 사진과 편집 내역을 함께 저장합니다. 사용자는 언제든지 저장된 [책 모듈] 컬렉션 항목을 선택해 수정 및 추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Step 08. 파일로 내보내기 합니다.

책의 유형을 [PDF] 또는 [JPEG]로 설정한 경우, 오른쪽 패널 그룹 하단의 [PDF로 책 내보내기] 또는 [JPEG로 책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해 파일로 저장합니다. 책의 유형을 [Blurb]으로 선택했다면 오른쪽 패널 그룹 하단의 [Blurb으로 책 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Blurb]에 로그인 해야 종이책 작업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 패널 그룹 하단에 [PDF로 책 내보내기] 버튼이 별도로 있으므로 PDF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책 모듈의 구성



① [미리 보기] 패널

[편집] 창에서 선택한 페이지를 미리 보여 주는 패널입니다. [맞춤], [1:1], [4:1]을 선택하여 [편집] 창을 확대 및 축소해 볼 수 있습니다.

② [컬렉션] 패널

책에 사용될 사진을 분류해 놓은 컬렉션 항목을 선택해 책 편집 작업을 시작합니다. 또한, 편집한 책을 [책 컬렉션]으로 저장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③ 책 편집 창

책 커버와 내지의 레이아웃을 디자인하고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편집 창입니다.

④ 옵션 설정 패널

책의 유형과 자동 레이아웃을 설정하고 입력된 텍스트의 폰트, 크기, 색상, 자간, 문단 정렬 등을 설정할 수 있는 패널입니다. 또한, 레이아웃 디자인에 필요한 안내선과 필러 텍스트 표시 유무를 설정하고 사진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⑤ 책 옵션 바

[편집] 창의 보기 모드를 선택하거나, [축소판] 슬라이더를 조정하여 [편집] 창을 확대 및 축소할 수 있습니다.

⑥ PDF로 내보내기

편집한 책을 PDF 파일로 내보내 저장합니다. PDF 파일은 커버와 내지 파일로 각각 생성됩니다.

⑦ Blurb에 책 보내기(유료)

편집한 책을 Blurb에 보내 종이책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⑧ 슬라이드 쇼에 사용할 사진이 표시됩니다. 레이아웃의 사진을 변경하거나, 수동으로 레이아웃을 구성한 경우 컬렉션의 사진을 [사진 셀]에 끌어다 놓습니다.

지금까지 [책] 모듈의 워크플로우와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책] 모듈의 세부 옵션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를 기록한 세계 저널리스트

글 · 사진 은효진(다큐멘터리사진가, 운영저문위원, 교양지부)

FSA(농업안전국, Farm Security Administration) 1935~1942

미국 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신경제정책이었던 뉴딜정책(New Deal)의 실시를 위해 대공황기속에 처해있는 농민의 구제와 정착화를 목적으로 한 부서의 명칭으로서 농업안전국 또는 FSA라 불렸다.

1930년대에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불어 닥치자 당시 농림부 차관이자 콜롬비아 대학의 정치경제학 교수였던 렉스포드 테크웰(Rexford G. Tugwell)은 곤경에 처한 농부들의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위한 임무를 띤 기구의 우두머리로 세워졌고 테크웰은 그의 제자였던 로이 스트라이커(Roy E. Stryker)를 이 기구에 가담시켜 시각매체를 활용하여 지원하고자 농업안전국 산하에 사진단을 조직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스트라이커에게 미국 농민의 힘겨운 생활상을 심도있게 보도할 사진촬영 계획을 지휘할 임무와 역사분과의 장의 임무가 주어졌다.

1) 1930년대 포토저널리즘의 첫 황금기

1930년대는 '포토저널리즘'이 첫 황금기를 맞았던 시대였다. 미국의 라이프 프랑스의 파리마치, 독일의 베를리너 일루스트리에테 자이퉁, 영국의 픽처 포스트 같은 포토저널의 풍요기를 가져온 잡지들이 나왔고, 이를 통해 스타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들이 의뢰한 사진만으로도 생계를 꾸려 갈수 있었다.

또, 이 시기엔 유럽은 대륙 전체를 휩쓸었던 양대 세계대전 사이에서 포토저널리스트들은 그들의 희망과 열정을 사진을 통해 보여주었다. 로버트카파는 스페인 내전에서, 알렉산더 로드첸코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은 새로운 대담한 시도로 미학적 사진을 추구했다.

한편, 미국은 정부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의 힘과 잠재력을 빨리 파악해서 농업안전국(FSA)의 보조를 받아 도로시링, 워커 에반스와 같은 사진가들을 통해 미 남부 농촌지역의 가난을 고발하는 작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이들 중 워커에반스는 1937년 뉴욕 현대 미술관(MOMA:Museum of Modern Art)에서 사진가로서 첫 개인전을 갖기도

했다. 포토저널리즘이 예술 형태의 하나로 시작된 것이다.

2) 빌브란트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서 30년대 초에 영국으로 이민 온 빌브란트는 외지인의 눈으로 관찰한 영국 북부 공업도시의 행복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위 사진처럼 한때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콜로슬리 카펫공장의 주변을 사선으로 뚫은 철도, 수직으로 솟은 굴뚝을 강조 하면서도 어두운 빅토리아 시대 풍경에서 나올만한 어린이들이 뛰어 노는 모습을 인간미 있게 포착했다



빌브란트, 1937, 영국 할리팩



알렉산더 로드첸코, 1930, 소련 모스크바

3) 알렉산더 로드첸코

알렉산더 로드첸코는 극단적인 앵글과 무자비한 크로핑을 통해 브라스 연주자를 모더니스트조각처럼 표현했다. 로드첸코의 추상적 앵글은 서방 비평가들 눈에 스탈린 통치의 프로파간다로 비춰졌다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1933, 스페인 세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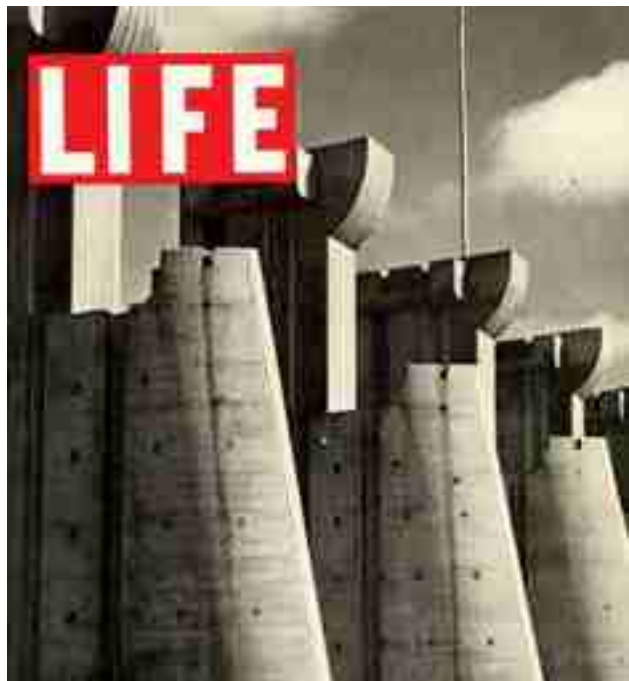
4)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진가중 한사람인 브레송은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삶을 아름답고 독특하게 표현했다. 아래와 같은 폐허 속에서 노는 가난한 세비야 어린이들의 이미지를 통해서도 웃음과 인간적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사진에 숨겨진 미학은 연극적인 구도와 원근감을 고려하면서도 웃음과 결핍을 동시에 보여준다. 화가가 되기 위해 모네와 쇠라를 공부했으며 초현실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브레송은, 스페인 내전에 참전했던 캠프에서 탈출하기도 했고, 훗날 매그넛 에이전시의 공동 설립자 중 한사람이기도 하다.

5) 마거릿 버크 화이트

미국 대공황 시절인 1937년 마거릿 버크화이트는 오하이오 대홍수 이후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에서 가장 못사는 시민들의 모습을 간판과 대조로써 미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마거릿 버크 화이트는 사진을 통해 뉴스를 접했고 그것을 역사로 남겼다. 이 시기 사진작가들은 충실한 보도자이자 역사기록자, 에세이스트이자, 예술가 그리고 저널리스트들이었다. 그 중 20세기 중반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하며 포토저널리즘의 새로운 세계를 연 여성 사진작가는 마거릿 버크화이트였다.



마거릿 버크 화이트, 1936, 미국 몬타나

Photo Review 01



도로시아 랭, 1936, 미국 캘리포니아

한편, 그녀가 찍은 미국 포트벡담의 기하학적인 이미지를 첫 호로 사진 전문 잡지라이프(LIFE)지가 1936년 11월 23일 미국에서 창간되었다. 픽처 포스트나 라이프지는 훗날 지면에서 사진이 어떻게 활자를 최소화하고 여백과 사진을 통해 스토리를 전달하는 가를 알려주게 된 전형이 되었다. 라이프는 주당 한때 13만부가 팔렸으나 미국인들의 생활을 위주로, 다소 보수적이고 애국을 강조하는 휴먼 스토리를 강조했다.

6) 도로시아 랭

도로시아 랭의 1936년 작 '이주자 어머니' (Migrant Mother). 1999년 제임스 나트웨이가 코소보 지역에서 알바니아인들의 인종청소 장면을 찍은 사진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극도의 불안을 내뿜는 눈과 양다문



마가렛 버크 화이트, 1937, 미국 캔타키



로버트 카파, 1936, 스페인 세로류리아노



워커 에반스, 1935, 미국 알라바마

입, 그리고 거기에 가져다 댄 손까지. 여자가 한손에 턱을 괴고 신비로운 상념에 잠겨 한쪽을 응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니포모 이민 캠프에서 도로시 랭이 촬영한 이 사진은 대 공황기 미 농업 안전국의 보조를 받아 진행된 대대적인 다큐멘터리 사진작업을 대표하는 사진이 되었다.

그녀의 깊은 주름은 결코 동정이나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 우아하고도 당당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7) 워커에반스

워커에반스는 다큐 사진가로 분류된 실제로 초현실주의 사진작가였다.

위 사진 역시 미 농업 안전국의 지원을 받은 작업으로 문화인류학자로서의 관점으로 알라바마의 한 가난한 농가를 촬영한 것이다

8) 로버트카파

로버트카파의 격언은 그저 사진가가 당신 사진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충분히 대상에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 라고 충고하는 세계중군사진기자의 모델인 로버트카파의 격언은 그저 물리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라는 뜻만은 아닐 것이다. 그건, 사진가가 정서적으로 혹은 정치적인 피사체와의 충분한 교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리라. 카파는 자신의 신념으로 앵글을 주관적으로 접근했으며, 저 유명한 스페인 내전의 공화당 병사의 죽음을 파시스트 프랑코에 항거해 죽어가는 병사를 영웅으로 묘사했다. 사진의 진실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1936년 프랑스 잡지 VU 발표되면서 카파를 가장 위대한 포토저널리스트로 남게 하였다.

사진 창작을 위한 이미지 발상기법 : 스캬퍼를 중심으로

글 · 윤은숙(학술분과위원회 운영위원,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경기광주지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변화 무쌍한 시의 발전 속도에 따라 지식과 기술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한다. 넘쳐나는 미디어와 유튜브, 그리고 무수히 많은 이미지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시대에 이미지를 생산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는 것 같다. 이 수많은 이미지들 속에서 '나의 이미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부상된다. 그래서 사진가로서 '나의 이미지'를 사람들의 뇌리에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어떻게 하면 나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가?

그 첫 단추가 '창의성'이 바탕이 된 이미지의 발현인 것이다.

이미 여러 디자인과 광고분야 등에서는 많이 쓰이는 이미지 발상 기법을 사진 창작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창의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문제해결을 위해 새롭고 유익한 아이디어를 생성, 발전 및 변형시키는 능력이다.' 새로우면서도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창의성에는 5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생산해 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창성(Fluency)', 생성해내는 아이디어가 담고 있는 범주(종류)의 수를 말하는 '융통성(Flexibility)', 아이디어가 남들과 달리 기발하고 독특한 것을 말하는 '독창성(Originality)', 생성한 아이디어가 얼마나 자

세하고 세부적이며 구체적인 수준인지 말하는 '정교성(Elaborativeness)', 문제를 민감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더 좋은 것을 찾아내는 '민감성(Sensitiveness)'² 등 다섯 요소가 있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긴밀히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 받으며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낸다고 볼 수 있다.

사진은 시각이미지의 한 분야이다. '발상'은 생각 속에만 있는 이미

지를 밖으로 드러내는 과정을 말하며 이때 상상력이나 연상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시각이미지를 다루는 이들에게 '발상'은 매우 중요한 능력 중 하나로 어떤 일이나 상황, 사물에 대한 발전적이고 독창적인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형태나 이미지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성있는 사진 이미지를 위해서는 사진만 보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는 없다.

사진 분야가 아닌 회화, 조

각, 영화, 소설, 시, 디자인 등등 많은 다양한 분야를 접하는 것이 창의성 개발에 더 주효하다. 창의성 발현을 위한 아이디어 발상법은 사진 이미지 '독창적 발현'을 위한 새로운 시도일 수 있다. 이제부터 그 방법 중 하나인 '스캬퍼(SCAMPER)'를 이용한 사진 창작을 위한 이미지 발상법에 대해서 알아 보자.



1 최용주,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21, p11

2 홍정표, 창의적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전소,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p17



[사진 1] Still-life #9, 윤은숙, 1993



[사진 2] Man Ray, "Cadeau" (Gift), 1921

1970년대 밥 에벌(Bob Eberle)이 오스본(Osborn)의 체크리스트를 보완하여 발전시킨 아이디어 발상법이 스캬퍼(SCAMPER)이다. 기존의 아이디어에 변화나 조작을 가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 전개 방법이다.³

7단어의 약자로 아이디어를 발상하도록 구성한 일종의 체크리스트이다.

SCAMPER는 대체(Substitute), 결합(Combine), 적응(Adjust), 변형/확대/축소(Modify, Magnify, Minify), 다른 용도(Put to Other Uses), 제거(Eliminate), 역발상(Rearrange)의 첫 글자를 따서 이름으로 만든 것으로 이와같은 질문 항목에 따라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기법이다.

이미 존재해 있는 아이디어의 변형으로 사진이미지가 작업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신선한 발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1. Substitute (대체하기)

대상의 기존 형태, 용도, 방법 등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

다. 예를들어 참치캔 뚜껑을 손이 다치기 쉬운 알미늄 뚜껑을 안전한 호일 뚜껑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그럼 사진의 예를 들어보자. 사진에서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촬영시 렌즈를 대체할 수도 있고, 촬영 소품을 대체할 수도 있다. 아래에 보이는 [사진 1]처럼 촬영한 사진을 프린트할 때 사진

인화를 한지로 대체한 경우이다. 물론 무조건 한지에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다. 사진작업의 내용과 맥락이 한지에 프린트로 대체했을 때 어울려야 할 것이다.



스캬퍼의 7가지 요소

2. Combine (결합하기)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사물이나 기능들을 두 가지 이상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질문이다. '새로운 무엇을 결합시키면?', '아이디어를 결합시키면?', '목적을 합하면?', 등과 같은 것이다. 예를들어 복합기능펜은 라디오와 mp3, 녹음 기능 등이 볼펜과 결합되어 있다.⁴

[사진 2]는 만 레이(Man Ray)의 1921년 작품으로 '선물'이라는 작품이다. 그는 초현실주의적인 사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다리미와 압정을 결합하여 괴이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사진으로 탄생시켰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물의 결합은 새로운 사고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3. Adapt (적용하기, 개조하기)

3 홍정표, 창의적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전소,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p136

4 홍정표, 창의적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전소,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p139

5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nh334a&logNo=221782184308> 중에서

Photo Review 02

기존의 원리, 방법이나 형태를 변형시켜 나의 상황에 적용하여 보는 것이다. 문제 상황이 있으면 다른 분야의 조건이나 목적에 맞게 응용해 볼 수 있도록 사고(思考)를 유발하는 질문을 한다. '이것에 다른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나?' 등을 질문해 볼 수 있다. 한마디로 형태나 원리, 방법들을 다른 분야의 조건이나 목적에 맞도록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⁵⁾

예를들어 가시도꼬마리 열매의 특징을 적용하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찍찍이' 벨크로를 만들어 내었다.



[사진 3] 히로시 스기모토(Hiroshi Sugimoto)의 'Alaskan Wolves' 1994

[사진 3]은 히로시 스기모토(Hiroshi Sugimoto)의 'Alaskan Wolves'는 스기모토가 미국의 자연사 박물관의 디오라마를 보면서 깨달은 사실을 토대로 작업하였다. 두 눈으로 보면 정말 가짜로 보이는데 한 쪽 눈을 감고보면 실제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이 사실을 캐메



[사진4] 앙드레 케르테츠(Andre' Kertesz) 'Distortion #40', 1933

라에 적용시켜 자연사 박물관 안에서 히로시 스기모토를 세상에 알린 '디오라마 시리즈(Diorama Series)'가 탄생하게 된다. 이는 어떤 장면을 사람의 두 눈으로 보는 것과 외눈박이 카메라로 볼 때 다른 점 즉, '사진적 시각'을 적용하여 만든 작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4. Modify, Magnify, Minify(변경, 확대 또는 축소)

기존의 것 일부(크기, 무게, 색, 기능, 디자인 등)를 변경, 확대 또는 축소시키는 방법이다.

확대 하면? 빼면? 길게 하면? 바꾸면?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질문들이다. 예를 들면 '노트북'은 '데스크탑 컴퓨터'의 간소화이다. 컬러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도 색을 넣어서 변형시킨 경우이다. 사진 작업시에 아주 작은 피사체도 크게 확대하여 보여주는 접사방식이나 매우 넓은 공간을 한눈에 보여주는 드론 촬영 같은 경우는 크기의 축소로 볼 수 있듯이 사진 작업에서 확대, 축소, 변형 등은 항상 하고 있는 작업 방식이기도 하다.

[사진4]는 앙드레 케르테츠(Andre' Kertesz)가 신체 변형을 이용하여 작업한 'Distortion Series'이다.

케르테츠는 거울 또는 반사 이미지와 왜곡된 인간의 형태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그러던 중 잡지사로부터 의뢰받은 사진 작업을 위해 포물선 거울을 사용한 일련의 누드사진 작업을 하였다. 그는 이 신체 변형을 이용하여 약 4주간 200여장의 네가티브를 제작했다고 한다. 그 이미지들은 여성의 신체 왜곡을 통하여 매우 초현실적이며 불안한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다.

5. Put to Other Uses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용도 바꾸기)

어떤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지금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버스는 운송 수단이지만 다른 용도인 식당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오래된 기차를 식당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위 사진은 빅 무니츠(Vik Muniz)라는 브라질 예술가의 작업이다. 한스 나무스(Hans Namuth)라는 작가



사진5: Vik Muniz. Action Photo, After Hans Namuth, 1997

가 촬영한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의 액션 페인팅 장면의 사진을 빅 무니츠가 초콜렛 시럽으로 재현하여 그린 후 사진으로 촬영하여 프린트하여 전시한 것이다. 무니츠는 이미 알려져 친숙한 이미지들을 설탕, 초콜릿, 실 같은 일상 생활의 소재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이다. 초콜렛 시럽은 음식이지만 그는 이것을 물감의 용도로 사용하여 한 스 니무스의 사진을 재창조하는 작업을 하였다.

6. Eliminate(제거하기)

대상에서 특정한 부분, 성분, 기능 등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다이슨에서 나온 선풍기를 보고 처음에는 날개가 없어서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던 것이 떠오른다. 선풍기 하면 날개인데 이 당연한 것을 없앤 아이디어가 바로 제거하기이다.

그럼 [사진 6]은 사진 촬영시 렌즈를 제거한 사진 즉, 핀홀 사진이다. 이 사진은 홀가라는 카메라의 렌즈를 없애고 핀홀로 구멍을 만들어 촬영한 사진이다. 핀홀 사진은 매우 깊은 피사계심도를 갖고 특유의 왜곡이



[사진 6] 윤은숙 Pinhole Image #12, 2000

있다. 렌즈를 제거해도 사진을 만들 수 있다. 필름뿐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도 쉽게 핀홀 카메라를 만들 수 있다.

7. Reverse, Rearrange(재배열하기 또는 뒤집기)

일의 형식, 순서를 재배열하거나 거꾸로 뒤집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드 김밥이다. 보통 김밥은 감→밥→재료 순서인데 누드김밥은 배치를 바꿔서 밥→감→재료 순이다.



[사진 7] 루카스 사마라스(Lucas Samaras) Panorama, 1983

루카스 사마라스(Lucas Samaras)의 자화상인 'Panorama' 시리즈 중 하나이다.

사마라스는 실내에서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촬영 후 그 사진을 잘라서 재배치하여 이 파노라마 시리즈를 작업하였다. 사진을 자른다는 생각도 파도치듯이 재배치하여 신체를 연장하여 보여주기도하고 여러 가지 변형 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스캐퍼 기법을 이용한 사진의 다양한 창작 방법을 보았다.

결론은 창작을 위해서는 마음과 사고가 유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자신의 작업에 작은 변화라도 만들 수 있고 그 변화가 시작점이 되어 자신만의 개성있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이 그런 작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사진 인용 사이트

사진 2: <https://smarthistory.org/man-ray-the-gift/>

사진 3: <https://www.artsy.net/artwork/hiroshi-sugimoto-alaskan-wolves-1>

사진 4: https://www.getty.edu/art/exhibitions/kertesz/06226101_zm.html

사진 5: <https://www.nytimes.com/2010/10/24/arts/design/24muniz.html>

사진 7: <https://www.moma.org/collection/works/46087>

제5회 학술지 출판, 3년 활동 마무리 학술교육분과위원회 발간식 및 워크숍

글, 사진 최옥임(보도사진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양평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정재문 지부장



©최옥임_청풍호 찬람함

오색단풍이 물들인 가을이 무르익어 가던 지난 11월 5일 17시 청풍호반의 비경을 동반한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 강당에서 제29대 학술교육분과위원회 제5호 학술지 발간식 및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내빈 및 분과위원들이 함께하는 자리에는 3년 동안 학술분과를 위해 많은 협조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공로를 인정하는 상패와 상품을 전달하는 이날 기념행사는 박흥신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 앞서 단체복 강의비 전달식에 이어 유병용 강사의 약력을 소개하고, 스포츠사진의 에로티시즘이란 주제를 가지고 강의에 이어 은효진 강사의 약력과 역사를 기록한 세계 저널리스트에 강의, 이덕만 강사의 약력과 사진에 관한 강의가 있었다.

이어진 학술교육분과위원회 학술지 발간에 큰 힘을 주신 본 협회 김양평 이사장, 신성우 부이사장께 도자기와 감사패를 정재문 위원장이 전달했으며, 이희배 감사에게는 이천 쌀 한 포를 전달했다. 이어진 위원회 공로상 우수회원 시상에서 남궁형남, 채영애, 박일호, 서기섭, 유정숙, 전재주, 장기택, 최원찬, 이희정, 김운정, 방성공, 어관규 위원에게 유광중 제5기 촬영지도위원회 회장이 시상했다.

이어진 제29대 한국사진작가협회 학술교육분과 제5호 학술지 발간식 및 워크숍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묵념 후 개회식 발간 기념식사에서 정재문 위원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김양평 이사장님, 신성우 부이사장님, 이희배 감사님, 은효진 자문위원님, 이덕만 이사님, 유광중 스포츠분과 위원장, 이성록 창작분과 위원장, 박순정 여성분과

위원장, 박원영 인물분과 위원장, 최옥임 보도사진분과 위원장은 두 세 시간이 걸리는 이 먼 곳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29대 분과위원장은 어느 분과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기뻐하기 힘들 정도로 모든 분과가 그 분과에 맞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분과의 활동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기까지 김양평 이사장님의 관심과 배려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미흡하고 부족한 회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사협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했다.



인사말을 하는 정재문 위원장



축사를 하는 김양평 이사장

지처럼 모든 분과에서는 각 분과에 맞는 사진 활동으로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학술지 발간으로 전국의 회원들이 보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정재문 위원장님의 타고난 리더십으로 명실상부 학술지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정재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빛나는 학술지 발간을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라고 축사를 마쳤다. 이어진 신성우 부이사장님의 축사와 이희배 감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김양평 이사장은 '여러분 반갑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학술지가 알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학술지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노고가 엿보입니다. 29대 이전의 분과 활동에서는 동아리 형태의 모임으로 운영되었다면, 29대에서는 26개분과의 각 개성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 분과에서 만든 학술

이번 제5호 학술지 발간 기념식 행사와 1박 2일을 위원들과 화기에 한 모습으로 함께하면서 제29대 분과활동 3년을 마무리하는 자랑스럽고 행복하지만 한편으로 아쉬운 제29대 학술분과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단체 기념촬영

조선 성곽 기행 작품집, 역사성 작품성 돋보여 제29대 보도사진분과위원회 출판기념회

글, 사진 김정호(보도사진분과위원회 경기간사)

석촌호수 잔잔한 물결 위에 롯데타워와 오색물결이 살포시 드리워져 오고가는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던 날, 로사나호텔 2층 강당에서 2022년 11월 12일 오후 2시 30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인사말을 하는 최옥임 위원장



축사를 하는 김양명 이사장



축사를 하는 김종택 부이사장

진행하였다.

1부 총회에서는 40여명의 보도사진분과위원과 김양명 이사장, 김찬식 송파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미숙 재무 간사의 재무 보고에 이어 3년

제29대 보도사진분과위원회 분과위원들과 내빈이 참석해 모임을 가졌다. 1부 총회, 2부 보도사진 촬영과 편집 기사 작성요령 강좌, 3부 조선시대 "성곽 기행" 출판기념회 및 사진전을 정정근 사무국장의 사회로

간 보도사진분과 위원회 우수회원 공로상 시상에서 김정호 경기간사, 서기홍 호남간사, 고미숙 재무간사 권정남 총무간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성곽기행 작품 전시

이어 최옥임 위원장은 우리들의 만남을 기록으로 남기고 추억의 향기로 기억하려 합니다. 우리 보도사진분과위원회는 2020년 7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8일부터 14일 코로나19 소멸과 희망, 환희라는 주제로 서울 종로구 소재 갤러리 강호에서 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협회 행사와 26개분과의 행사를 취재하여 본 협회 월간 한국사진에 기고하고, 전국에 있는 조선시대 성곽 촬영을 병행해 가면서 위원님들의 혼과 열정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성곽 기행 작품집을 출판하여 오늘 뜻깊은 출판기념회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위원님과의 동행을 기억하면서 행복할 것입니다. 그동안 만남과 동행으로 조선시대 성곽 기행 작품집이 탄생하여 선보이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곽 기행의 작품집 출간을 함께하신 60명 위원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했다.

김양평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각지에 있는 조선의 성곽 기행 작품집을 보니 일반인의 시각과 사진작가들의 시각 차이가 작품성과 역사성 그리고 기록성이 매우 높고 양장제본으로 품위가 있고 고급스러운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 비치하여도 손색이 없다고 강조하였으며 사계절 성곽취재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노고에 축하를 드린다고, 또한 작품들을 한국사진 월간호에 매회 작품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김양평 이사장은 축사에 이어 사진전 개막식 테이프 커팅과 보도분과 위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였다.

2부 행사는 오후 4시부터 최승언 강사가 보도사진 및 편집 기사 작성 요령에 대해 강의하였다. 최승언 강사는 "제목, 리드, 본문, 따옴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어 반복 피하기, 제목 달기, 인터넷 교정 등에 관해서" 예를 들어가며 이해하기 쉽게 열강하였다.

3부 출판기념회와 축하 행사를 오후 6시부터 진행되어 최옥임 위원장은 출판기념회에 참석 한 주요 내빈 소개 후 김종택 부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주요 내빈으로 이영섭 자문위원, 은효진 자문위원, 김의배 이사, 이막래 이사, 한분조 이사, 김찬식 이사, 최임순 동작구지부장, 정재문 이천지부장,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호 위원장, 김형덕 위원장, 박순정 위원장, 박원영 위원장, 신경애 위원장, 송장호 위원장, 이성록 위원장, 황말남 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이어서 축하 케이크절단식 후 이어 만찬과 송파구지부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여흥의 시간을 갖고 호텔에서 쉬고 다음 날 아침 조식 후 롯데타워와 석촌호수의 가을 풍경을 촬영하고 모든 행사를 마쳤다.



단체 기념촬영

‘해님이 해맞이’ 2022년 송년행사 다큐사진분과위원회 촬영회 개최

글, 사진제공_우숙자(다큐사진분과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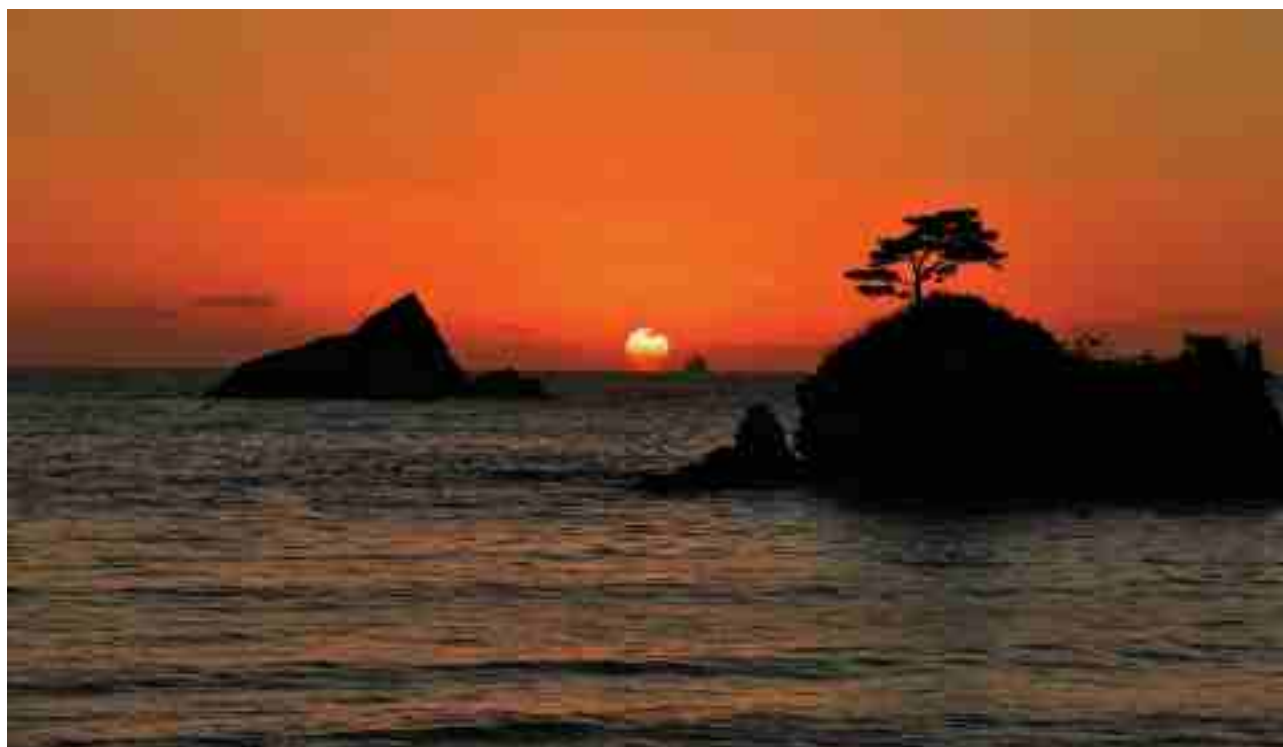
다사 다난했던 2022년 한해의 끝자락인 11월 26일 ~ 27일 양 일간에 다큐사진분과위원회 주최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소재 먼동항을 비롯한 인근에 위치하는, 민어도항, 학암포항, 간월암에서 금년도 다큐사진분과위원회 마지막 촬영회를 가졌다.

먼저 일몰 시간에 맞추어 먼동항에 도착한 위원들은 일몰 촬영을 끝난 후 숙소로 돌아와 행사장에서 제29대 다큐사진분과위원회를 위해 헌신한 위원들을 중 공로가 큰 위원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다음날 새벽 너무 추운날임에도 불구하고 민어도항 일출 촬영을 시작하였다. 다들 사진촬영의 열정을 가지고 한 컷이라도 놓칠새라 실패 없이 촬영을 진행하였다. 위원들의 열정이 너무 아름다운 현상이었다. 이



©우숙자



©우숙자 먼동항 일몰의 아름다움

후 학암포항에서의 촬영 후 서산3경의 하나로 불리우는 간월암으로 이동 조선 이성계의 왕사였던 무학대사가 창건한 암자인 간월암은 바닷물이 들어오면 작은섬이 되고 물이 빠지면 길이 열리는 서산의 3경 중 한 곳이다.

이 곳은 서해의 낙조가 장관을 이루어 이때를 맞춰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고 한다. 간월암 촬영을 끝으로 2022년 다큐사진분과위원회와 촬영회, 송년특집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 막을 내렸다.



학암포항 앞 단체촬영



간월암 앞 단체사진

한국사진작가협회 2022년 사면신청 공고

2022년 제6차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29대 집행부 임기동안 징계처분을 받아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면신청을 공지합니다.

신청대상 제29대 집행부 임기동안 징계처분 되어 회원으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단,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송 또는 이의신청 중이거나 소송으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함.

제출기한 2022년 12월 16일(금) 도착 분
(소속 지회, 지부를 거쳐 협회에 신청서가 도착한 기준)

유의사항

- 1) 사면신청자는 반드시 소속 지회·지부로 사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각 지회·지부에서는 접수된 사면신청에 대해 간사회를 거쳐 직인이 날인 된
사면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마감 기한 이전까지 도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3) 사면신청서와 사면의견서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 각종서식 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 금번 신청 건은 12월 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2022년 11월 4일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면위원회 위원장 김 중 택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회비납부 안내 공고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선거관리 규정 변경에 따라 선거가 열리는 해를 기준으로 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투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2023년 1월로 예정된 차기 이사장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부여되는 회비납부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22년 회비까지 완납 되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본인의 회비 납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회원의 의무 이행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많은 양해 바랍니다.

- 광역시지회 및 지부 회비납부 회원님께서 소속된 지회 지부에 납부
- 지회 - 지부 전용 계좌: 농협은행 301-0156-2082-01
- 서울 구대부에 소속되지 않은 본 협회소속 서울지회
- 연회비 10만원 분회비 납부 (국민은행 031-25-0001-564)
- 문의 및 회비납달 : 재무팀장 조윤숙(02-2655-3135)

- 회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 정간 한국사진 방송 중 회원님들의 회비 등으로 제작
- 광역시지회 지부 운영규정에 의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 상실
- 회원 입회규정 제5조 1항에 의거 2년 이상의 회비 미납시 정간
- 정간 후 1년 이내에 회비 미납사 처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비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본 협회 사무처(02-2655-3135)로 연락바랍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김 양 평

협회소식 SOCIETY NEWS

제22회 서울특별시사진대전 시상식, 대상에 허성숙



인사말을 하는 김양평 이사장

었다. 이날 행사는 김양평 이사장, 김종택 부이사장, 백만중 운영위원장, 양범석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내빈과 수상자 그리고 축하객들이 참석하여 김형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했다.

백만중 운영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올해 대회는 서울시 사업 공모지연으로 인해 자체 행사로 진행된 것과 접수 및 심사 경과에 대해 보고를 하였다. 이후 김양평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에는 여러 일정상 사유로

제22회 서울특별시사진대전 시상식이 지난 2022년 11월 23일(수) 14시에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

되었다. 다행히 작품집이 만들었습니다만 전시는 협회 온라인 갤러리에 서 하게 되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좋은 작품들



단체기념촬영



대상 허성숙 수상자와
기념촬영을 하는
김양평 이사장

이 많이 선보여지길 바라며 수상하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남겼다.

양범석 심사위원장은 “창작성과 작품성 그리고 예술성 있는 작품을 선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대상작품은 각기 다른 시선의 방향을 통해 나타낸 무관심이란 현재의 현실의 모습을 반영한 좋은 작품성을 보여 주었습니다.”라는 심사평을 남겼다. 심사평 이후 초대·추천작가상, 입선 대표, 특선, 우수상, 대상 순으로 시상이 진행되었다. 특히 수상자 중 우수상을 받은 박흥근 작가는 9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사진작품 활동

을 꾸준히 해나가며 많은 분들에게 커다란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영애의 대상 수상자인 허성숙 작가는 “우선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대전에 관계하신 여러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이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큰 영광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수상소감을 끝으로 시상식을 마쳤고 단체 사진촬영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됐다.

글, 사진_최옥임 보도사진분과 위원장



우수상 박흥근 수상자와 시상식 후 악수를 하는 김양평 이사장



우수상 최국순 수상자와 기념촬영하는 김양평 이사장

협회사식 SOCIETY NEWS

제3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박옥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옥수 위원장과 악수하는 김양평 이사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옥수 위원장의 인사말

지난 11월 9일(수)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강의장에서 제30대 정·부이사장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총 25명의 위원들이 이날 수여식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위해 참여했으며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임원을 호선하였다. 그 결과 서울 박옥수 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김완기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호선되었으며 배택수 위원이 상임위원직을 맡게 되었다.

김양평 이사장은 모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무엇보다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

탁드립니다.”라는 인사를 남기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위해 자리를 떠났다. 이후 박옥수 위원장은 “모든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후 이어진 첫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거공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시간이 넘는 열띤 회의를 통해 선거공고에 대한 결론을 내렸고 다음 회의를 기약하며 이날의 일정을 마쳤다.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



제3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모습

경기도지회 합동촬영회 뜨거운 열기 속에 성료



©강돈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지회장 김시묵)는 지난 11월 20일 수중촬영 전문 스튜디오 포프라재(경기도 포천 소재)에서 경기도 소속 본 부이사과 경기도 31개 지부장, 지회 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지회 합동촬영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지회 활동을 격려해주기 위하여 내빈으로 신성우 부이사장, 유수찬 상임이사와 타지역 소속 본부 이사들도 함께 참여하여 촬영의 시간을 함께 가졌다.

경기도지회 합동촬영회에서는 특수촬영에 대한 세미나와 수중모델의 다양한 연출, 특수촬영기법을 통한 다양한 컨셉 촬영으로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수중촬영 모델 촬영지도 및 연출은 경기도지회 강돈영 기획간사(경기도지회)가 함께 물속에 들어가 다양한 컨셉으로 진행하였으며, 대형 호라이존에서는 김영훈 연출감독(한국사진방송)을 비롯한 촬영전문 연출팀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다양한 테크니컬 촬영기법을 연출하였다

한편, 김시묵 지회장(경기도지회)은 인사말을 통해 “평소 쉽게 접해보지 못하는 특수촬영기법을 예술적 경험을 통해 연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경기도지회가 더욱 단합하고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글, 사진제공_강돈영(경기도지회 기획간사, 청년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의정부지부)



단체 기념 촬영

회원동정 MEMBER PLAZA

결혼을 축하합니다

· 박명원(춘천)회원 영애혼

2022년 11월19일(토) 오후12시 춘천 미래컨벤션웨딩홀 4층 포레스트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신정순(춘천)회원 별세

별세 2022년 11월 3일 발인 2022년 11월 5일

· 김복희(춘천)회원 별세

별세 2022년 11월 6일 발인 2022년 11월 8일

· 김용인(광주)자문위원 별세

별세 2022년 11월 12일 발인 2022년 11월 14일

· 정명용(영등포구)회원 모친별세

별세 2022년 11월 13일 발인 2022년 11월 15일

· 남주환(서울)회원 빙모별세

별세 2022년 11월 18일 발인 2022년 11월 20일

· 신건이(대전)자문위원 별세

별세 2022년 11월 28일 발인 2022년 11월 30일

Gallery 투고 안내

Gallery에 게재된 사진전시회는 사진전문 잡지인 월간 한국사진에서 본 협회 회원들 뿐 아니라 사진애호가들에게 다양한 사진전시를 소개하여 직접 관람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게재되는 사진전시회는 본 협회 회원이라면 무료로 진행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Gallery 사진전시회 올리는 방법

1. 대표작 1~2점, 간략한 작가노트 A4 1/3분량.
2. 전시제목, 전시장소, 전시날짜, 전시작가 순으로 작가노트에 삽입하여 제출 요망.

3. 데이터 올리는 곳

· 웹하드 접속 후 아이디 kpass / 패스워드 kpass - 무료 갤러리 투고 폴더에 투고자명 폴더 생성 후 업로딩

· 본 협회 이메일 koreapask@daum.net 로 무료 갤러리 투고자명으로 데이터 업로딩

4. 업로딩 일자는 익월 게재 희망시 전월 3번째 주 금요일 이전까지 데이터 업로딩

요망 (ex. 2월호 게재 희망시 1월 18일 이전까지)

5. 단, 투고원고가 너무 많을 시 임의 편집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게재 문의. 02-2655-3131

발전기금 적립 내역

(2022년 11월말 현재)

- 27대까지 적립금(2017.2월말) : 798,001,466
- 28대까지 적립금(2020.2월말) : 218,172,424
- 29대적립금(2020.3월~03월말) : 82,004,333
- 계 : 1,098,178,223

○입회자 발전기금 계 : 256,400,000 (2,564명/발전기금 100,000/인)

- ① 2017년 계 : 36,600,000 ※특별회원2명 제외
- ② 2018년 계 : 53,200,000
- ③ 2019년 계 : 100,900,000
- ④ 2020년 계 : 15,700,000 ※특별회원3명 제외
- ④ 2021년 계 : 27,700,000
- ④ 2022년 계 : 22,300,000
- ▷ 2022년01월(59명): " 5,900,000 "
- ▷ 2022년03월(46명): " 4,600,000 "
- ▷ 2022년04월(24명): " 2,400,000 "

- ▷ 2022년05월(9명): " 900,000 "
- ▷ 2022년07월(41명): " 4,100,000 "
- ▷ 2022년10월(30명): " 3,000,000 "
- ▷ 2022년11월(14명): " 1,400,000 "

○기타 계 : 43,776,757

- ▷ 이자(보통예금) : 68,628 (28대 누계)
- 67,521 (29대 누계)
- ▷ 이자(정기예금) : 24,403,796 (28대 누계)
- 15,236,812 (29대 누계)
- ▷ 이자(임차보증금) : 4,000,000 (29대 누계)

○운용 계 : 400,000,000

- ▷ 사무실 이전 임차보증금 : 400,000,000 (목동,한국예총 건물)

□ 총 적립금 잔액 : 698,178,223

현상 및 출력

- 아트웍스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57(삼성동 42세출민센터) 803호 Tel. 023653-9007 Fax. 023654-9007
- 필포현상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39-5 대림빌딩 2F Tel. 023273-5371~2 Fax. 023273-5301
- 포토랜드 - 서울시 중구 회계로4길 14(충무로 1가) 2층(7952층) Tel. 023273-9320 Fax. 023273-9329
- 아원상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7 Tel. 023329-7070
- 포토랩 - 경기도 시흥시 흥천로 707번길 1-2 Tel. 03332-0971 Fax. 03332-0973
- 도솔 스튜디오 -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497 Tel. 041540-5550
- 성오사진 - 광주시 동구 광암로199번길 3(금남로3가 1-5) Tel. 010-3022-4349
- 동원포토샵 현상소 -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487-1 Tel. 042826-2500
- 대한포토 현상소 - 대구시 중구 대동로 273 Tel. 053423-9003
- 감포로샵 - 대전시 대동로299번길 11 Tel. 042221-1853
- 로얄컬러 현상소 - 대전시 동구 청동 12-17 Tel. 042225-4122 Fax. 042221-4122

사진 기자재

- 브라타지엔피 - 경기 파주시 신원로지길 100번지 Tel. 033444-3600 Fax. 033444-3650
- 포토클럽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영동로 26번길 21 Tel. 031486-9111 Fax. 031486-9119
- 선지스튜디오클럽 - 서울시 용산구 보람대로 60길 20 삼승빌딩 Tel. 027792-3100 Fax. 027792-3100
- 렌로코리아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7-1 동국빌딩 1층(1층) Tel. 02775-9527 Fax. 02773-9724
- 코리아 포토프로덕트 - 서울시 중구 동호로 343 2F Tel. 023436-9775 Fax. 023436-9771
- 무한이디어 - 서울시 중구 수표로 12, 별관빌딩 1층 Tel. 021518-7106 Fax. 021515-5508
- 반도카메라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4길 36 (충무로2가) 반도빌딩 Tel. 02303-2266-5803~4
- 강산컴파니 - 서울시 중구 회계로 27길 25 청광빌딩 303호 Tel. 02771-9881 Fax. 020265-0714
- 홍인 - 부산시 동구 광복로 95-1(공복동 35-3) Tel. 051255-1300 Fax. 051255-2311
- 그린촬영시스템 -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10길 27(방배동) Tel. 022635-8100 Fax. 033536-8200

액자

- 아트웍스 출판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57(삼성동 42세출민센터) 803호 Tel. 023653-9007 Fax. 023654-9007
- 두천아트 - 경기도 시흥시 신원로 125(신원동 42세출민센터) Tel. 031134-5255
- 동일액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도동 533-3 Tel. 053352-5444 Fax. 053231-6443
- 컬러리 액자 -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2532빌딩 40 Tel. 1588-4266 Fax. 051351-7791
- 공간액자 - 대전시 중구 산하동 264-2 Tel. 042222-2245
- 포토천지 - 전북 전주시 개포로 129 Tel. 053712-5509
- 삼원종합액자 - 대구시 남구 대동로199길 29-2 Tel. 053475-8900
- 한양액자 - 대구시 중구 대동로 11길 5-9 Tel. 053-429-5261
- 스파르텍액자 - 대구시 중구 동대 (서대민동) Tel. 053-425-8800
- 동원액자 - 경기도 시흥시 수원로 3077번길 1 Tel. 031-311-2575~6

동일액자(주) 고객센터 : 02-2655-7132



<http://dongilframe.allthetway.kr>

동일액자

웹사이트: www.web08nd.co.kr
 이메일: dongil04443@gmail.com
 동일04443@gmail.com

- 하드락액자(광학필름) • 디아섹액자(아크릴)
- 메탈액자(알루미늄판) • 사진출력 및 기본수정

"직접에 기술을 더한 액자와 사진출력"

한국사진대전, 각종 전시회 제작

- 대표문의 010-8462-8268 - 서울 광명역 **전주동일액자** 홍길배대표

Best Brand & Proudect

극강의 화질에 AI AF로 더욱 강력한 AF 성능을 갖춘 $\alpha 7R V$

소니에서 5세대 미러리스 카메라인 a7R V를 출시했습니다. a7R V는 6,100만 화소의 이면조사형 35mm 풀 프레임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고 있으며, AI AF를 통해 업그레이드 된 AF 성능과 5축 8스탑에 해당하는 뛰어난 흔들림 보정 능력 그리고 4축 틸트 앤 스위블 LCD 등 전반적인 조작 인터페이스 및 편의 기능 향상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카메라 성능을 갖추었습니다.



■ 6,100만 화소의 이면조사형 35mm 풀 프레임 CMOS 센서와 BIONZ XR™ 프로세서

소니 a7R V는 약 6,100만 화소의 35mm 규격 Exmor R CMOS 이미지 센서와 BIONZ XR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인

a7R IV와 센서는 동일하지만 BIONZ XR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고감도 노이즈 억제력이 향상되었고, 동영상 촬영 능력과 AF 검출 성능 등에서 큰 향상을 이루었기 때문에 현시점 고화소와 고성능을 모두 만족하는 최강 성능의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 AI AF로 더욱 강력해진 AF 성능

소니 a7R V는 별도의 AI 칩셋이 처음으로 탑재되어 더욱 높아진 AF 성능을 제공합니다. AI AF는 인물 촬영 시 골격을 인식하여 얼굴과 눈의 위치를 예측하기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더욱 뛰어난 검출 능력을 보이며, 뒷모습을 촬영하거나 장애물이 많은 환경에서도 리얼타임 트래킹 AF 대비 더욱 완성도 높은 AF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인물 촬영 시에는 복수의 인물중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 그 활용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AF 피사체 인식 기능〉

소니 a7R V에 탑재된 피사체 인식 기능은 인물, 동물 뿐만 아니라 곤충, 탈 것 등 다양한 피사체를 인식하기 때문에 조류 촬영이나 잠자리, 나비, 벌 등 곤충을 촬영하는 분들에게도 더더욱 편리한 촬영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동물/새의 경우 몸통, 머리, 눈을 구별하여 선호하



Best Brand & Product

는 검출 범위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화소로 더욱 선명하면서도 정확한 AF 검출을 확보해낼 수 있습니다.

■ 5축 8스탑 손떨림 보정 장치

a7R V의 5축 손떨림 보정 장치는 Pitch 상하회전 / Yaw 좌우회전 / Roll 수평회전 / Y 상하수평이동 / X 좌우수평이동의 5개 축에 대한 보정을 지원합니다. 고화소로 갈수록 촬영시 발생하는 흔들림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손떨림 보정 기능이 없으면 삼각대를 사용해야 하는데 a7R V는 6100만 화소의 초고해상도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8스탑의 5축 손떨림 보정 장치가 흔들림을 안정적으로 보정해주기 때문에 핸드헬드 촬영시에도 부담이 적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카메라 테스트 시 1초 이상의 장노출 촬영도 핸드헬드로 촬영할 수 있어서 더욱 다양한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외형적인 변화점 - 4축 틸트앤스위블 LCD, 듀얼 메모리 슬롯

a7R V는 외형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이루었는데 가장 많은 변화를 보

인 부분은 LCD입니다. 기존 틸트형 LCD에서 4축 틸트앤스위블 LCD가 적용되어 가로, 세로 촬영 모두에 만족할 수 있으며, HDMI 등 외부 인터페이스와도 간섭이 없어서 활용성이 더욱 우수합니다.



메모리 슬롯은 기존 a7R IV의 경우 SD 메모리 카드만 지원해서 고용량의 사진을 저장하기에 속도면에서 부담이 될 때가 많았는데 a7R V는 CFA와 SD 메모리를 모두 지원하는 듀얼 메모리 슬롯을 탑재하여, 필요에 따라 CFA 메모리 카드를 활용할 수 있어서 메모리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또한, 기존 a7R 라인업이 사진 중점의 카메라였다면 a7R V는 사진 뿐만 아니라 영상에서의 퀄리티도 상당히 높아진 카메라입니다. 최대 8K 동영상 촬영을 지원하며, H.265 코덱과 액티브 손떨림 보정 장치 등을 탑재하여, 더욱 다양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a7 IV처럼 모드 다이얼에 사진, 영상, S&Q 모드를 바로 전환할 수 있는 레버가 탑재되어 조작성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 더욱 높아진 완성도의 고해상도 미러리스 카메라 소니 a7R V

소니 a7R V는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 중 가장 높은 화소의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고 있으며, 단일 촬영면에서는 AI AF로 a1을 능가하는 AF 성능을 갖추고 있어, 고화질 & 고성능을 모두 만족하는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거기에 5축 8스탑 손떨림 보정 장치까지 탑재하고 있어 안

정성까지도 확보하였기 때문에 더욱 사용자가 핸드헬드로 다양한 사진을 쉽게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상 촬영의 중요도가 높아진 시대에 향상된 영상 촬영 성능까지도 갖춘 R 시리즈 모델이기 때문에 최고의 사진 성능을 갖추면서도 영상 성능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기다렸던 사용자들에게는 현시점 최고의 미러리스 카메라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 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 제2기 졸업전

The PASK Master Course of Photography Art
2nd Graduation Exhibition

2022. 12. 7 ~ 12

Gallery Lamer 3F

(6, 7 exhibition room)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 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 제2기 졸업전시

GALLERY

December

‘성서의 땅 이스라엘’ - 김한기 사진전



전시일시 2022년 12월 20일(화) ~ 12월 28일(수)

관람시간 10:30 ~ 17:00

전시장소 전북CBS방송 갤러리(전북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453)

전시작가 김한기

여러 촬영지 중 이스라엘은 예수의 탄생과 사역, 고난, 부활 승천한 장소가 있는 곳으로 말 그대로 성경의 땅이다. 3대 종교의 발상지이며 여러 민족이 살고 있어 다양한 문화와 더불어 어제와 오늘이 함께 공존하는 나라이다. 한 예로 팔레스타인은 금요일, 이스라엘은 토요일, 크리스찬은 일요일에 안식일을 지킨다. 화폐는 대부분 이스라엘 세겔을 사용하지만 팔레스타인은 자치 화폐를 사용하기도 한다.

〈작가노트 중에서〉



‘다큐멘터리 사진50주년 기념’ - 김재동 초대전



전시일시 2023년 1월 19일(목) ~ 5월 7일(일)

전시장소 포항시립미술관(환호공원 내)

전시작가 김재동



G A L L E R Y

D e c e m b e r

‘골목의 밤’ - 박형호 사진전

전시일시 2022년 12월 2일(금) ~ 12월 8일(목)
 전시장소 갤러리 현장A라운드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038)
 전시후원 진주시
 전시작가 박형호



구부러진 좁은 골목을 뛰다 넘어서 생긴 생채기처럼 파고드는 기억이 있다는 것을 한참의 세월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문득 가로등이 켜진 언덕 아래 동네를 지나다 고개를 틀어보니 그곳에 어릴적 뻘질나게 드나들던 친구의 집이 오래전 모습 그대로 서 있었다. 순간 울컥 그 시절 그리움이 눈 앞에 다가섰고 저절로 옮겨진 발걸음은 그 집앞과 부근 골목을 한참이나 서성이게 만들었다. 머릿속과 가슴은 나도 모르게 수십년의 공간을 뛰어넘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있었다.

지난 겨울 그렇게 다가선 기억의 감정들로 채색된 밤골목을 이리저리 헤매게 되었고 그 과정들을 손에 잡힌 카메라에 하나, 둘 적어 넣고 있었다.

〈작가노트 중에서〉

‘상주포도, 사진으로 이야기 하다’ - 김영훈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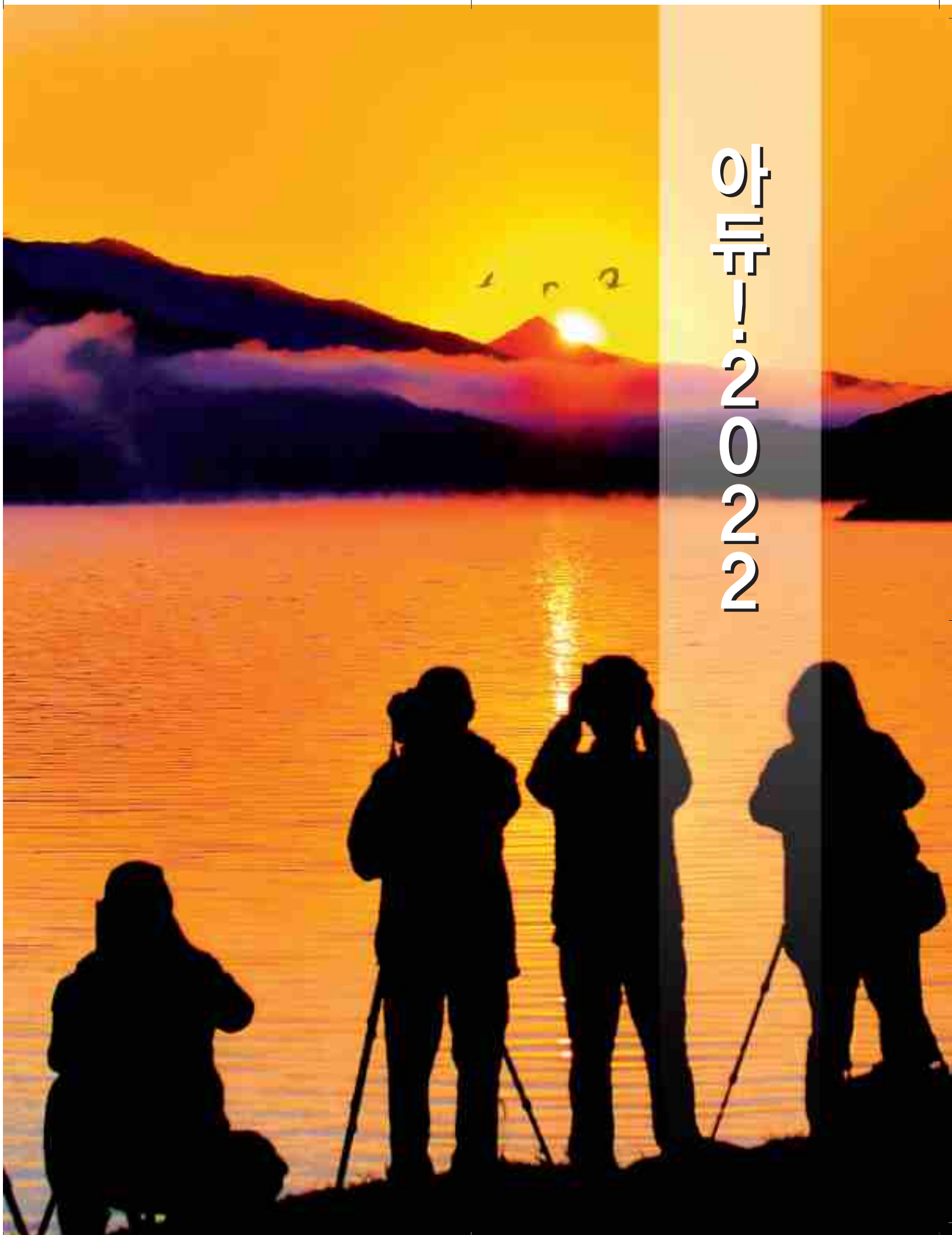
전시일시 2022년 11월 22일(화) ~ 12월 30일(금)
 전시장소 상주시청 민원실 (경북 상주시 화동면 이동전시)
 전시작가 김영훈

우리 인류의 역사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한 과일, 포도는 동글동글한 모양과 특유의 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이다. 최근에는 사인머스켓과 마이하트 포도라는 푸르고 붉은 포도가 보랏빛의 캠벨을 생산량과 가격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다.

전국 최고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상주포도 생산지에서 작가는 다년간 생활하면서 그 생산 현장을 사진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작가노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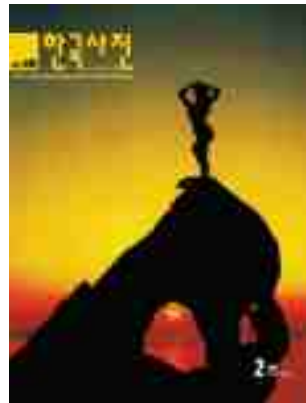
아
라
2022-2022





한국사진 2022년 1월호 통권 498

- 03 Headnote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있습니다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김양평
- 06 [특집 - 김양평 이사장에게 듣는다]
"대한민국사진대전의 개선을 통해 공정성과 격을 높이겠습니다"
- 24 전시광고
바람이 들려주는 풍경이야기, 자연의 숨결 - 추녀영
- 34 Photo Essay 01
낮선 그곳, 행복했던 순간의 기록
'여행' - 우갈수
- 38 자상전 01
시시각각 색깔 바꾸는 하늘과 바다
형제섬 해돋이 - 고순환
- 42 Photo Essay 02
두루미도 내려쉬어...새들의 휴식처 DMZ
민통선 마을 이길리 - 김효경
- 46 자상전 02
날카로운 표정너머 온화한 매력에 '심쿵'
'가시나무의 잔설' - 오성자
- 50 Beyond Boundary
사진예술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
시각적 관점에서 사진이해 강의록 - 류민형
회원광장
- 54 Review & Preview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 아카데미 작가과정 제1기 졸업전 - 김재훈
사진강좌
- 60 Travel destination
그때는 '유해조수' 지금은 '별종위기'
한국 호랑이 역사와 전설 - 최승언
- 64 Lightroom
새로운 마스크로 로컬보정을 더 쉽고 편하게 - 백중수
- 68 Photo Review
전국에 열그루, 화귀종 천연기념물
이천 백송 梨川白松 - 정재문
협회소식·분과
- 72 Society News / Member Plaza
2021년 9차, 10차 이사회 결과
보도사진분과위원회 - 워크숍 및 사진 전시회
학술교육분과위원회 - 워크숍 및 학술지 발간 기념식
협회소식 - 본 협회 사진예술 아카데미 작가과정 제1기 졸업전시회 개최,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 90 Best Brand & Product
사진과 영상에 기본기에 충실한 베이직 카메라 소니 a7 IV
- 94 Gallery
자연의 숨결 - 추녀영 개인전



한국사진 2022년 2월호 통권 499

- 03 Headnote
원칙을 고수해 나가겠습니다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김양평
- 24 [특집 - 2022년 강부만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에게 듣는다]
"백년, 이백년 지속될 수 있는 협회가 되길 바랍니다"
- 창립 60주년 특별 인터뷰 ① 강부만 운영자문위원장
- 34 전시광고01
길 찾아 나선 깨달음의 여정, 공간의 풍경 - 임연웅
- 38 전시광고02
"추상(抽象)에서 찾은 나의 心像" - 차현자
- 42 Photo Essay 01
'천년역사' 품은 내 고향, 경주괘릉리 원성왕릉 - 배원태
- 46 자상전
겨울의 잔객 순천만서 "뚜루루 뚜루루"
흑두루미 월동 여행 - 성정채
- 50 Beyond Boundary
포토갤러리 기획전, '사진예술아카데미' 졸업작품으로
'삶의 경계(境界)에서 On the border of life - 조주은
- 54 Photo Essay 02
'Unexpectedly_뜻밖에'
- 부산·울산 사진교류전 - 권일, 최경현
회원광장
- 58 Review & Preview
모형일까 실제일까... 디자인 마츠에 타이즈 전 '마키에타' & 'OC' - 윤해진
- 62 Review & Preview
사울 레이더 : 청문을 통해 어렵듯이
Saul Leiter : Through the Blurry Window- 김재훈
사진강좌
- 68 Travel destination
동북공정의 노림수... 고조선이 위태롭다
홍산문화와 피라미드의 비밀 - 최승언
- 72 Lightroom
점진적인 조정을 위한 선형 그레이디언트 마스크 - 백중수
- 76 Photo Review
역사 언어 장벽 뛰어넘은 유언한 장르
예술사진 - 유정숙
협회소식·분과
- 80 Society News / Member Plaza
2021년 11차 이사회 결과
추사고택 정동호 초기엔 '옛정취' '물씬' - 다류사진분과위원회 신년 첫 촬영회
협회소식 - 제60회 한국사진문화상 심의,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 100 Best Brand & Product
고해상, 손떨림 보정, 액티브 모드 다 갖췄다
소니 a7 IV의 주요 특징
- 104 Gallery
"추상(抽象)에서 찾은 나의 心像" - 차현자 개인전 외



한국사진 2022년 3월호 통권 500

- 03 Headnote
오백번 째 이야기를 펴내며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김양평
- 16 [특집 - 2022년 장학기금관리위원장]
"조직은 명확한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 창립 60주년 특별 인터뷰 ② 김광철 장학기금관리위원장
- 28 전시광고 01
오래 걸어진 길일까 편린의 추종일까, 두 번째 서른 : 기억의 저편 - 성주희
- 32 전시광고 02
시루봉 휘감고 전해만 덮은 백색의 아침, 구름 위의 불모산 - 이상구
- 36 한국사진문화상
제60회 한국사진문화상 선정
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공로상 선정
제59회 전국회원작품 시상전 우수 작품상
- 54 지상전 01
농원 만들고 씨부려 '다중촬영', 노을에 꽃이 물들다 - 최성용
- 58 Photo Essay 01
범람하는 유혹 '독일까 악막', 인간과 악물 - 강철순
- 62 지상전 02
우는 아이 달래는 어머니의 음성처럼...
깊고 푸른 내마음의 고향 - 이상순
- 66 Photo Essay 02
'천년역사' 품은 내고향 경주 패릉리 원성왕릉Ⅱ - 배원태
- 70 Beyond Boundary
사진창작에서 이미지의 발상기법 및 원리 - 윤은숙
회원광장
- 72 Review & Preview
병치(並置)의 즐거움 I - Mix & Match - 김재훈
사진강좌
- 78 Travel destination
'비호감 후보'에 한 표, 유배 보냈다
고대 그리스의 도편추방제 - 최승언
- 82 Lightroom
점진적인 조정을 위한 방사형 그레이디언트 마스크 - 백종수
- 86 Photo Travel
세계질 생태자연의 보고, 촬영명소로 '눈길', 청평 중앙 내수면연구소 - 남궁형남
당일치기 촬영포인트, 클램핑 차박도 'OK', 가평 '차라섬' - 한명희
협회소식·분과
- 90 Society News / Member Plaza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 92 Best Brand & Product
강력한 동영상 촬영기능 갖춘
소니 a7 IV
- 104 Gallery
"구름 위의 불모산" - 이상구 개인전 외



한국사진 2022년 4월호 통권 501

- 03 Headnote
다양한 시도, 새로운 작품을 기대합니다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김양평
- 18 [특집 - 2022 초대작가위원회위원장]
"한사진을 통해 스타 작가를 키워내야 합니다"
- 창립 60주년 특별 인터뷰 세번째 김정식 초대작가위원회 위원장
- 26 전시광고 01
타임라인 저편, 맵그로브 희귀목 춤춘다, '시가 흐르는 순간 & 무목마을' - 김경환
- 30 전시광고 02
너를 알고나서 나를 만날 수 있었다.
상처 그 내면을 그리다 - 김영애
- 36 지상전 01
산업사회 진입기, 한국 사회상 '생생'
시간여행-Time Travel 1965~1980 - 박옥수
- 40 Photo Essay 01
경승의 향기, 그 짙은 역사속으로... 팔공산의 미소 - 강위원
- 44 Photo Essay 02
'천년역사' 품은 내고향 경주 패릉리 원성왕릉Ⅲ - 배원태
- 48 지상전 02
버그내순례길엔 순교자 숨결 들리는 듯... 김대건 신부 태어난 '그길에 서다' - 이문희
봄꽃향기, 가을단풍, 아이들 재롱까지 과수원은 나의 촬영장 - 김금영
바람과 물, 시간이 그린 명품무늬 모래위에 Design - 김용길
- 52 Beyond Boundary
「삶의 경계에서 On the border of life」- 토포하우스 갤러리 신진작가 초대 기획전 - 양양금
회원광장
- 56 Review & Preview
제임스 바너 첫 아시아 개인전 'Ever Young'
주체적 시각으로 표출한 아프리카의 매력 - 김재훈
사진강좌
- 62 Travel destination
관념보다 치열한 리얼리즘 추구했다
프레임 갭 거장들의 청출여람 - 최승언
- 66 Lightroom
마스크 영역을 자유자재로 설정하는 브러시 마스크 - 백종수
- 70 Photo Travel
끊임없는 외세에 맞선 동방정교의 땅
코카서스 아르메니아 - 김경호
협회소식·분과
- 74 Society News / Member Plaza
2022년 1차 이사회 결과
협회소식,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 90 Best Brand & Product
브이로그에 최적화된 카메라
ZV-1
- 94 Gallery
"상처 그 내면을 그리다" - 김영애 사진전 외

Photo story



한국사진 2022년 5월호 통권 502

- 03 Headnote
일상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김양평
- 18 [특집 - 김양평 이사장 특별 인터뷰]
“후보 등록이전 예비후보 등록 실시로 제한된 선거운동 할 수 있게 규정 개정”
- 주요 선거관리규정 변경 내용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김양평 이사장
- 30 전시광고 01
“흐름은 나를 설레이게 한다” Photostory of Long Exposure - 송인호
- 34 전시광고 02
걸음 멈추고 대면한 나무의 삶과 죽음, 자작 그 자리에 있을 때 - 이만우
- 38 전시광고 03
햇살 머금은 영결의 숨결 내 마음의 '彼岸' - 이항희
- 42 Photo Essay 01
올레길 풍양엔 제주역사 오롯이... 바람의 흔적 침묵의 시간
The trace of wind The time of silence - 권기갑
- 46 지상전 01
울산 태화강 생태, 그 찬미의 날갯소리, 때까마귀의 군무 - 서진중
- 50 Photo Essay 02
밤의 제왕, 전주천 '제국권 장악' 하다, 최부영이의 낮과밤 - 서성진
- 54 지상전 02
우주는 시시각각 보석컬러 불꽃놀이, 'Space Landscape' - 銘仙 이호연
- 58 Photo History
'천년역사' 품은 내 고향Ⅳ 경주 패룡리 감산사지 - 배원태
- 62 Beyond Boundary 01
억제된 색채로 잉태한 풍성한 표현, 요코하마시민갤러리 콜렉션전 2022『모노크롬』展 - 윤혜진
회원광장
- 66 Review & Preview
알렉스 프레거-빅 웨스트 I, ALEX PRAGER, BIG WEST - 김재훈
사진강좌
- 72 Travel destination
마니산 참성단 품은 한국문명 존재할까, 서해 해저에 '잃어버린 대륙' - 최승언
- 76 Lightroom
색상 따라 영역 설정하는 '색상 범위 마스크' - 백중수
- 80 Beyond Boundary 02
가시광선 너머 보이지 않는 빛 '포착' 적외선 사진 촬영법 - 서기섭
- 84 분과위원회
동강면 칠봉산 자락 생명력에 '포커스' - 야생화사진분과위원회
꽃과 새의 조합 '이렇게' ... 알찬 교육 빛났다 - 꽃사진분과위원회 촬영회
협회소식·분과
- 88 Society News / Member Plaza
2022년 2차 이사회 결과,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 98 Best Brand & Product
소니 미라리스 카메라 라인업별 최적의 위상차 AF 조건
- 102 전시리뷰
섬세한 감성으로 풀어낸 제주돌꽃 27점 - 제주여성사진동호회 창립전 - 이명희
- 104 Gallery
내 마음의 - 彼岸 - 이항희 개인전 외



한국사진 2022년 6월호 통권 503

- 03 Headnote
행복을 위한 노력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김양평
- 22 전시광고 01
무생물 마네킹에 욕망과 감정 불어넣다. 삶의 옴니버스 the omnibus of life - 배정옥
- 26 전시광고 02
장안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진(작가)과정 작품 발표회
사진시각전
- 30 제40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심사 스케치
제40회 대한민국사진대전 대상에 이명수 '집으로 가는 길목' 선정 - 최옥임
운영위원장-운영위원장 김 정 식
심사위원장-심사위원장 신 성 우
제40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자 인터뷰
“인간 내면에 자리잡은 화귀분능 포착” 이명수의 '집으로 가는 길목'
대상, 우수상, 추천작가상, 특선작
- 62 Photo History
경주 패룡리 감산사지, 영지 석불좌상과 수봉정 - 배원태
- 66 지상전 01
복제는 없다, 단 하나의 작품을 위해... 유화적 상상 - 김정현
- 70 Photo Essay 01
장막 걷힌 무대엔 화려한 에너지 '남실' 빛과 나 - 황진이
회원광장
- 74 Review & Preview
일상 속 감동 고즈넉한 사진전, for Life, 생을 위하여 - 김재훈
사진강좌
- 80 Travel destination
카메라 발명했더니... 사실주의 그림의 종말, 19세기 화가들의 위기와 기회- 최승언
- 84 Lightroom
발기기에 따라 마스크 영역 설정하는 '광도 범위 마스크' - 백중수
- 88 Beyond Boundary
'얇고 서고 높고' 시공따라 표정따라, 우리 불상 답사기 - 어원규
- 92 분과위원회
여행사진분과위원회
여성사진분과위원회
스톡사진분과위원회
협회소식
- 98 Society News / Member Plaza
2022년 2차 이사회 결과
협회소식 - 2022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워크숍 용평리조트 개최 외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 104 Best Brand & Product
미래형 렌즈 소니 FE 24-70mm F2.8 GM II
- 108 전시리뷰
제8회 한국디지털아트 디플 정기전 2022
- 110 Gallery
“삶의 옴니버스 - The omnibus of life” - 배정옥 개인전 외



한국사진 2022년 7월호 통권 504

- 03 Headnote
전시작품이 가치를 증명합니다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김양평
- 20 전시광고 01
수려한 강산 축복받은 자연의 기록, 여주 사계 (驪州四季) - 김준기 개인전
- 24 전시광고 02
시시각각 빛의 각도따라 변하는 천태만상, 갯가의 흔적-정종관 개인전
- 28 전시광고 03
영·호남출신 한국사진작가협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모임 창립 사진전
- 32 2022 PASK AWARDS 후기
본회 창립 60주년 기념 2022 PASK AWARDS 개최
김양평 이사장 "화합 발전하는 협회되어야" - 최옥임
2022 PASK AWARDS-2부 시상식
제40회 대한민국사진대전 문체부 장관상에 '이명수' - 최옥임
- 44 자상전 01
'독섬' Tlukseom 1967~1976
은빛 물결 속 벌거숭이 뛰어 놀던 곳 - 박옥수
- 48 Photo Essay 01
화중생연 火中生蓮
불꽃 속에서도 연꽃으로 피어 나소서 - 박옥렬
- 52 자상전 02
고동치는 생명력 갯골따라 흐른다, 서해의 아침 - 유연식
- 55 Photo Essay 02
틀속에 갇힌 작은 픽셀의 꿈, 양귀비의 시간 여행 - 도재수
회원광장
- 58 Review & Preview
안드레아스 거스키 개인전-Andreas Gursky - 김재훈
사진강좌
- 64 Travel destination
선교사, 왜 카메라 들고 이땅에 왔나, 서세동점기 사진이야기 - 최승언
- 68 Lightroom
사진의 깊이 따라 마스크 영역 설정하는 '광도 범위 마스크' - 백종수
- 72 Beyond Boundary
가차 멈춘 옛 역사 시간도 멈췄다, 그때 그 시절 폐역 4 - 채영애
- 76 분과위원회
스포츠사진분과위원회
다큐사진분과위원회
창작사진분과위원회
협회소식
- 82 Society News / Member Plaza
협회소식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익산지부 원로사진작가 20인 초대전 외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 86 Best Brand & Product
영상촬영에 최적화된 컴팩트 시네마라인 카메라 FX3
- 90 Gallery
창립 사진전 외



한국사진 2022년 8월호 통권 505

- 03 Headnote
함께, 새로운 도약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김양평
- 28 전시광고 01
시간의 궤적따라 그려낸 신의 선물, 채움과 비움-연흔連痕 - 박봉수 개인전
- 32 전시광고 02
바위틈 뿌리내린 긴 세월 숨은 자연, 나무가 있는 풍경 - 정일경 개인전
- 36 전시광고 03
자연, 그 풍경 앞에선 나도 바람이고 싶다, Light & Moment - 김민주 사진전
- 40 전시광고 04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진예술아카데미 23기
5인의 시각전 『심상산책(心象散策)』
- 44 Photo Essay 01
안과 바깥, 그 교차점 주목한 파노라마
그들의 생존방식- 이수연
- 48 Photo Essay 02
'馬 줄게 茶 다오' 中 · 티베트 간 무역로
차마고도 - 은효진
- 52 자상전 01
중첩 이미지서 추출한 '추상패턴'의 세계
몽구이야기 - 송재운
- 55 자상전 02
빛과 그림자 포착한 시공의 기억
자연의 변주·變奏 - 최정호
회원광장
- 58 Review & Preview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사진전
결정적 순간 - 김재훈
사진강좌
- 64 Travel destination
의심 많고 낙담한 영혼, 사랑 앞에선 강했다
큐피드와 프시케의 러브스토리 - 최승언
- 68 Lightroom
여러장 사진 '한꺼번에'... 후보정 '일괄처리' - 백종수
- 72 Beyond Boundary
대청마루 바람엔 화가의 예술혼 '그윽'
운보의 집 - 신명현
협회소식
- 76 Society News / Member Plaza
2022년 4차 이사회 결과
협회소식 - 2022 한국사진작가협회 장학기금 수여식 개최 외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 96 Best Brand & Product
소니의 최신 렌즈 트렌드
- 100 Gallery
나무가 있는 풍경- 정일경 개인전 외

Photo story



한국사진 2022년 9월호 통권 506

- 03 Headnote
멋진 가을날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김양평
- 06 특집/제7회 대한민국사진축전 Preview
특별전 I "미지의 땅! - 사우디아라비아 알물라"
특별전 II 원로작가전 "Oldies but goodies"
- 32 전시광고 01
어릴적 소풍길은 내 삶의 여운 '바람결에 흩날리어' - 홍순임(대전) 개인전
- 36 전시광고 02
국립세종식물원 특별기획 초대전
우리 소나무 분재 사진전-윤영식(괴산)
- 42 자상전 01
이경모 사진전-역사가 된 찰나
- 46 Photo Essay 01
세세년년 후손에 물려줄 영원한 유산, 천년의 숨결 I - 이한철
- 50 Photo Essay 02
추상, 그 강렬한 점·선·면의 만남
카오스 - 혼돈의 시간 - 정 동
- 53 자상전 02
두려워 말라 비바람 견디고 당당하라
나 홀로 우뚝서기 - 최정희
회원광장
- 56 Review & Preview
국제공모전의 국내외 수작 한자리에...
2022 동강국제사진제 - 김재훈
사진강좌
- 62 Travel destination
세계 해전시에 빛나는 충무공의 지략
한산대첩 학익진 - 최승언
- 66 Lightroom
위치 기반으로 사진을 관리하는 지도 모듈 - 백중수
- 70 Beyond Boundary
강희명 연꽃 심은 못에 전당홍 '활짝'
안산 관곡지 촬영기 - 김은정
- 74 분과위원회
산악사진분과위원회 하계 촬영회 - 남도의 금강산, 월출산
민속사진분과위원회 촬영 및 워크숍 - 장승명인 & 안동하회탈춤
디지털아트사진분과위원회 - 하계 촬영대회 개최
학술교육분과위원회 - 학술토의 워크샵 개최
협회소식
- 80 Society News / Member Plaza
협회소식 - 경기도지회 지부장 및 임원 워크샵 개최 외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 84 Best Brand & Product
소니의 새로운 APS-C 렌즈 3총사
- 88 Gallery
국립세종수목원 특별기획 초대전 - 우리 소나무 - 윤영식 사진전 외



한국사진 2022년 10월호 통권 507

- 03 Headnote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김양평
- 18 특집/개전식 Preview
제7회 대한민국사진축전 개전식
제7회 대한민국사진축전 현장스케치 I
제7회 대한민국사진축전 현장스케치 II - Photo talk - 사진을 이야기 하다
- 34 협회특집
소나무와 빛의 여정(旅情)
Journey of Pine Forest and Light -殷山 김양평
- 38 전시광고 01
제41회 한국영상동인회 전국회원전 -3년만에 오프라인 전시... 가을 관람객 맞이한다
긴 호흡 깊은 화면에 진솔한 삶 기록하다 - '대구 어제와 오늘'
- 42 전시광고 02
갈전의 보물창고
A treasure house of Gaejeon Village - 고명녀(속초) 사진전
- 48 Photo Essay 01
미 서부 이색지대 '비현실적 경관' - 김종택 부이사장
- 52 자상전 01
침묵을 벗 삼아 진한 향기 따라서
바다의 소리 Melody of the Sea - 한병률(경산)
- 56 자상전 02
척박한 땅 뿌리 내린 소나무의 삶
홀로 선 생명 - 임성동(장흥)
- 60 Photo Essay 02
세세년년 후손에 물려줄 영원한 유산, 전북 천년사랑 - 이한철(전주)
회원광장
- 64 Review & Preview
순정만화 모티브로... 디뮤지엄 이전기념 기획전, 어쨌든, 사랑 : Romantic Days - 김재훈
사진강좌
- 70 Travel destination
민족 기상 꺾은 100년의 프레임, 고요한 아침의 나라 - 최승언
- 74 Lightroom
사진을 음악과 함께 재생하는 슬라이드쇼 모듈 - 백중수
- 78 분과위원회
한탄강 계곡서 연출한 인체와 자연의 만남 - 누드사진분과위원회 촬영회 개최
'빛과 동행하는 장르'... 날씨 중요성 강조 - 풍경사진분과위원회 워크숍 및 촬영회
협회소식
- 82 Society News / Member Plaza
2022년 5차 이사회 결과
협회소식 - '시간여행 1965~1980 박옥수 사진집' - '2022 세종도서' 선정 외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 96 Best Brand & Product
소니 블루투스 무선 카메라 슈팅 그립 - GP-VPT 2BT
- 100 Gallery
'갈전의 보물창고-A treasure house of Gaejeon Village' - 고명녀 사진전 외



한국사진 2022년 11월호 통권 508

03 Headnote

함께 손을 마주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김영평

22 특집/제7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사진예술로 문화교류 확대"한 목소리-주한사우디아라비아 사미 알사드한 대사 만남

30 전시광고

바람의 손길 스쳐간 곳에 '모네의 평화' - 물 위의 풍경 a watery landscape - 송진웅
연하고 은은한 그리움 찾아 핀홀 촬영 - 해바라기 (색의 유혹) - 이상섭
꽃내음 가득한 경이, 동양화 속으로 - 五色圖苑 오색도원 - 권순중

42 자상전 01

영속하는 생명물질 디지털리즘에 담다
'색에 잠긴 형태들' - 서성강(천안)

46 Photo Essay 01

잃어버린 땅 옛 영토를 그리며... 잊힌전설
Return to the lost territory... The Forgotten Legend - 박경서(중구)

50 Photo Essay 02

먼길 발걸음 멈추고 소리없이 '공감'
자작나무, 그 자리에 있을 때 - 이만우(대구)

54 자상전 02

2022 평택사진축전 '바깥'의 심사를 마치고 - 박이찬
김효정_ 화색의 바다_ 변민과 위안 사이... 도돌이표처럼
배정욱_ 삶의 옴니버스 the omnibus of life_ 욕망 감춘 무표정에서 발견한 삶의 여정
장성숙_ 가면에 감춰진 자아_ 얼굴 가리고 내안에 나를 찾아가다
회원광장

58 Review & Preview

버룩시장 떠돌던 작품... 알고보니 거장의 '숨씨'
비비안 마이어 사진전 - 김재훈
사진강좌

64 Travel destination

세계 최초의 신문 탄압하고 망국의 길로...
유럽과 달랐던 조선의 보도통제 - 최승언

68 Lightroom

사진을 음악과 함께 재생하는 슬라이드 쇼 모듈-2 - 백중수

72 분과위원회

스포츠사진분과위원회
29대 스포츠사진분과위원회 촬영대회 개최 - 최옥임
환경사진분과위원회
2022 환경사진분과위원회 회원전 개최 - 최옥임
협회소식

80 Society News / Member Plaza

2022년 6차 이사회 결과
협회소식 - 한국예총 전국 대표자 워크숍 및 대한민국예술축전 개최 외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90 Best Brand & Product

미래형 렌즈의 시작 - 소니 FW 70-200mm F2.8 GM II

95 Gallery

"2022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전" 외



한국사진 2022년 12월호 통권 509

03 Headnote

참여 영역의 확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김영평

04 제30대 정·부이사장 선거 공고

[선거공고 1호] 제30대 정·부이사장 선거 공고

[선거공고 2호] 제30대 정·부이사장 선거 예비후보 및 후보등록 공고
선거를 맞이하여 회원님께 드리는 말씀 - 박옥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3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단

[선거공고 3호] 제30대 정·부이사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결과 공고

10 특집/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전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전 개최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상 수상작

38 자상전 01

서울산책 10명의 산책자들을 통해 본 세월의 간극 - 박옥수(서울중구)

42 Photo Essay 01

생장소멸하는 자연, 정치화면에 담다. 생명의 빛- 이만우(대구)

46 자상전 02

'똑딱똑딱' 회로애락 추억돼 흐르고... 내 인생의 보물, 시간 - 이장희(밀양)

50 Photo Essay 02

아름이 가득한 곳, 생명이 싹튼다. 매항리 54년 간의 기록 - 임삼진(수원)
회원광장

54 Review & Preview

크리스 맥카우 사진전
Chris McCaw 'Into the Sun' - 김재훈
사진강좌

60 Travel destination

진실은 글보다 카메라, 세상 비꾼다. 사진의 생명력 - 최승언

64 Lightroom

책 모듈에서 나만의 작품집 만든다 - 1- 백중수

68 Photo Review

역사를 기록한 세계 저널리스트 - 은효진
사진 창작을 위한 이미지 발상방법 : 스캔퍼를 중심으로 - 윤은숙

76 분과위원회

학술교육사진분과위원회
학술교육사진분과위원회 발간식 및 워크숍 - 3년 활동 마무리, 제5회 학술지 발간 - 최옥임
보도사진분과위원회
제29대 보도사진분과위원회 출판기념회 - 김정호
다큐사진분과위원회
'해님이 해맞이' 2022 송년행사 및 촬영회 개최 - 우숙자
협회소식

84 Society News / Member Plaza

협회소식 - 제22회 서울특별시사진대전 시상식, 대상에 허성숙 외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90 Best Brand & Product

극강의 화질에 AI AF로 더욱 강력한 AF성능을 갖춘 a7R V

95 Gallery

'성서의 땅 이스라엘' 김한기 사진전 외

제39회 제천 전국사진 공모전 접수마감

2023년 2월 10일 (소인유효)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시부에서 제39회 제천전국사진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사진작가 및 동호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음모요령

출품자격 : 제한없음
 작품내용 :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 자유작
 작품규격 : 컬러 및 흑백사진 11 x 14인치 (장정됨)
 출품료 : 1인 20,000원 출품수 : 1인 4점 이내
 출품요령 : 작품 뒷면에 성명, 작품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한 출품표
 접수처 : 우)27164 충북 제천시 대채로 75, 마른배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시부
 연락처 : 사무국장 010-3454-0102
 접수마감 :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당일 우편소인 유효)

심사

심사일시 : 2023년 2월 18일 (예정) 심사장소 : 제천시청 대회의실
 심사방법 : 공개심사 심사결과발표 : 심사 후 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전시 및 시상 : 3월 31일 ~ 4월 6일 (예정)
 작품반출 : 작품 반출은 하지 않습니다.
 입선 이상은 주최측에 귀속되며, 상장과 작품집은 황폐 개별 발송



시상내역

금상 1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0,000원
 은상 2점 : 제천시장 상장 및 상금 각 500,000원
 동상 3점 : 제천시의회 의장상장 및 상금 각 200,000원
 가작 5점 : 한국예총 제천시회장 상장
 장려 5점 : 한국사협 제천시부장 상장
 입선 : 한국사협 제천시부장 상장 (총 출품작 수의 20% 이내 - 입상작 포함)
 ※ 상금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함 (게재이제 시 공제 후 지급)

유의사항

- 출품작의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출품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동일작품, 유사작을 이중으로 출품하여 입상, 입선 된 경우 상권이 취소됨은 물론 사협 입회자격이 7년간 유보되며, 사협 회원은 징계조치 됨.
- 심사발표 후 금·은·동 수상자는 7일 이내에 신분증 및 통장사본, 작품파일을 입선 수상자는 도록용 파일을 (onion219@hanmail.net)으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상권 취소)
- 입상자는 시상식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불참 시 대리인이 참석)

주최 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시부

후원 : 제천시, 제천시의회, 제천문화재단, (사)한국예총제천시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